

## 中風의 治法 中 平肝法에 對한 考察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金己烈 · 金鍾吳 · 鄭智天

### I. 緒論

오늘날 食生活의 西歐化, 老齡人口의 增加 등으로 因해서 中風의 發生率이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死亡原因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中風은 突然히 昏倒하여 人事不省, 痰涎壅盛, 言語障礙, 半身不遂, 口眼喎斜 등을 나타내는 疾患으로 卒中, 偏枯, 偏風이라고도 한다. 西洋醫學에서는 腦의 急激한 循環障礙로 因하여 갑자기 意識障礙와 運動麻痺症狀 등을 일으키는 腦血管 疾患이 中風의 範疇에 屬하며 腦硬塞, 腦室內出血, 蜘蛛膜下出血, 高血壓性 腦症 등이 여기에 屬한다.<sup>1-3)</sup>

中風은 內經에서 飲酒中風 新沐中風이란 用語로<sup>4)</sup> 기록된 후 諸家들의 學說과 時代的 變遷에 따라 名稱과 原因 및 病理機轉, 分類, 治法, 治方이 多樣하게 形成되었다.

中風의 主要 病因病機는 內經에서 內虛邪中, 氣虛逆上, 體質 或은 飲食을 原因으로 들고 있으나 主要로 外感風邪 즉 外邪論을 주로 提示하였고,<sup>4)</sup>以後 宋代까지 中風을 外中風邪로 認識하였으며 金元代에 이르러 劉의 主火說, 李의 主氣說, 朱의 主濕痰說 등 內傷之病으로 認識하여 中風 病因學說에 큰 轉換點이 있었다.<sup>5)</sup>明代 王安道는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區別하였고,<sup>6-7)</sup> 특히 清代 이르러 葉天士는 中風의 內因을 眞中과 類中의 區別을 명확히 하고자 陰虛陽亢의 病機로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

榮 肝陽偏亢 內風時起”라 하여 內風說을 主張하였다.<sup>8-9)</sup> 이후 張伯龍, 張錫純, 張山雷는 內經의 “血宛于上”, “血之與氣并走于上”의 病機로 內風에 의한 病因을 發展시켰다.<sup>10-12)</sup>

治法에 있어서 仲景은 祛風散寒, 化痰清熱, 補益氣血 熄風潛攝하는 侯氏黑散을 代表方으로 使用하였고, 千金方과 外臺秘要에서는 小續命湯을 代表方으로 外邪를 除去하는 消風祛邪法이 主要로 使用되었으며,<sup>6)</sup> 葉天士는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sup>8)</sup> 張伯龍은 “潛鎮攝納”을 治法으로 使用하였고,<sup>10)</sup> 張錫純은 鎮肝熄風湯을 創製하였다.<sup>11)</sup>

최근에는 中風이 單純한 하나의 病因에 의해 發하는 것이 아니라 內風說을 포함하여 外邪, 火, 濕, 痰, 虛, 內風 등의 複合的인 病因에 의해 發하며 平肝潛陽, 滋陰熄風, 活血化痰, 清熱化痰 등의 治法이 使用되고 있다.<sup>13)</sup>

平肝法은 肝氣上逆, 肝陽上亢, 肝風內動으로 인한 中風症狀에 대한 治法으로 王旭高의 治肝方法中 鎮肝, 抑肝, 潛陽, 熄風 등을 포괄한 것으로 平肝藥은 具體的인 效能과 應用에 따라 肝風이 內動하여 風痰이 熾盛할 때 나타나는 呃逆清水, 胸痺窒塞, 神煩不寐, 肢麻, 納少痰多, 脈弦滑한 경우 및 陰虛하여 頭目眩暈, 心煩不得臥, 筋脈拘急, 脈細數의 症狀이 나타날 때 쓰이는 平肝息風藥과 肝陽上亢하여 頭目昏眩, 手足抽搐, 或은 口眼喎斜, 舌乾語澀, 頭痛不止, 猝然倒地, 舌紅苔膩, 脈弦數(滑數)한 경우의 平肝潛陽藥으로 分類할 수 있다. 특히 釣鉤藤, 蚯蚓, 羚羊角, 決明子, 天麻 등은 單

한 降壓作用 뿐만 아니라 鎮靜, 鎮痛作用이 있음이 밝혀졌다.<sup>14-16)</sup>

魏<sup>17)</sup>는 鎖肝熄風湯加減으로 治療한 中風 50 예를 報告하였으며, 趙<sup>18)</sup>는 腦出血 急性期에 熄風湯을 爲主로 治療하였고, 曹<sup>19)</sup>는 鎖肝熄風法으로 治療한 震顫麻痺症을 報告하였다.

최근 中風 治療中 平肝法이 매우 重要視되고 있으므로 著者는 歷代文獻과 臨床報告를 통하여 平肝法에 대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肝과 風의 關係(內經中心)

肝은 風臟으로 風氣는 그 性質이 好動流走하여 生理的 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나 지나치면 쉽게 病理的 現象을 일으킨다. 이는 木이 風에 쉽게 搖動되고 넘어지듯 肝이 특히 風에 쉽게 感動되며 風動을 일으켜 人體를 卒仆케 하는데 이는 筋, 節, 髓, 靭帶 等の 運動性 障礙를 誘發하고,<sup>20)</sup> 이에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風氣通於肝”이라고 하고 <素問. 六節藏象論>에서 “肝者 罷極之本 .... 通於春氣”한다고 하여,<sup>4)</sup> 肝은 風臟으로 風臟이라함은 風病의 發生, 經過, 治療, 恢復에 絶對的인 臟器임을 意味하는 것으로 風病은 神經系 疾患이고 風은 神經 또는 神經의 作用을 意味한다고 인식되어 神經學的 障礙疾患을 風臟인 肝의 機能과 聯關시켜 調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20)</sup> <素問. 玉機眞藏論>에서 “春脈太過即 令人善忘 忽忽眩冒而癩疾”이라고 하니<sup>4)</sup> 風病은 肝의 機能이 太過하거나 不足하게 되므로 風病治療에 대개 肝經藥이 使用되며 平肝, 潛陽, 滋陰, 熄風, 瀉肝 等 肝의 氣機와 陰血을 調節하게 되며,<sup>20)</sup> 張<sup>21)</sup>은 肝은 風木之臟으로 肝木이 失和하여 風이 肝으로 부터 起因한다고 하여 內風形成의 主要原因으로 肝의 機能失調가 中心이 된다고 하였다. 董<sup>22)</sup>은 春陽之氣의 上升이 內風이

일어나는 病因病機와 밀접한 關係가 있어 “外風與內風相煽”이라고 하였고, 鄭<sup>23)</sup>은 氣候誘因 調查中 氣候變化가 中風發病과 密接한 關係가 있어 體內 平衡失調와 血管의 機能 障礙를 일으켜 血壓 및 血流變化로 中風이 發病한다고 하였다.

肝의 升發之氣에 관해 肝을 흔히 體陰用陽의 臟이라 하는데 여기서 體란 肝臟自體의 特性 즉 構造的 機質의 特性을 意味하는 것이고 用은 肝臟自體의 機能과 肝系器官을 통하여 나타내는 發生力 및 運動성과 關聯있는 機能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sup>20)</sup> <素問. 生氣通天論>에 “陽氣者 大怒即 形氣絕而血苑于上 使人薄厥”하고 <素問. 厥論>에 “陽氣盛於上即 下氣重 上而邪氣逆即 陽氣亂即 不知人也”라 하고 <素問. 調經論>에 “血之與氣 并走于上即爲大厥 厥即暴死 氣復反即生 不反即死”라 하였으며 <素問. 方盛衰論>에 “氣上不下 頭痛癩疾”이라 하여,<sup>4)</sup> 張<sup>21)</sup>은 一段 內風이 形成되면 向上, 向外, 升發하는 性格으로 神志障礙까지 이르는 重症을 나타내고, <素問. 至眞要大論>에 “諸風掉眩 皆屬於肝”, 또한 <素問. 風論>에 “風者 百病之長也 善行而數”하고 <素問. 解精微論>에 “厥即目不見 夫人厥即 陽氣并于上 陰氣并于下 陽氣并于上即 火獨光”이라고 하였으며,<sup>4)</sup> 姜 等<sup>9)</sup>은 風은 陽邪이고 風勝即動하여 善行而數變하고 掉는 搖이고 眩은 運으로 이는 木之化니 屬於肝이라고 하여, 中風 發病이 急激하고 病機轉化가 飛速하며 症候變化가 飛速하다 하였다. 朱<sup>24)</sup>는 肝의 用은 陽으로 肝氣와 肝風은 竄行의 特徵이 있는데 肝風이 되면 風陽이 全身을 搖動하여 비록 13候之說이 있으나, 主要症狀으로 眩暈, 抽搐, 筋惕肉瞤, 瘈瘲, 昏仆, 蝎僻不遂, 麻木拘攣 等の 症狀이 나타나고, 暴怒로 肝氣가 清竅를 上遊하면 氣厥로 卒然昏仆, 手足逆冷, 口噤握拳의 症狀이 나타나고, 氣火가 上沖하여 血이 氣를 따라 元神을 上搏하여 薄厥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卒然昏仆, 人事不省, 面目紅赤, 痰聲漉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肝主筋, 肝藏血的 側面에서 <素問. 五臟生成篇>에 “肝之合筋也... 人臥即 血歸于肝”이라고 하고, <素問. 痿論>에 “肝氣熱即 膽泄口苦 筋膜乾 筋膜乾即 筋急而攣 發爲 筋痿”라고 하고<sup>4)</sup> <靈樞. 經脈篇>에 “足厥陰 氣絕即 筋絕 厥陰者 肝脈也 肝者筋之合也”라고 하니,<sup>25)</sup> 人體의 모든 筋은 肝에 의해서 主管되어 全身의 筋膜이 반드시 肝血의 滋養에 依賴해야만 하는데 臨床上 肝主筋의 機能이 失調된 狀態는 肝血의 不足으로 表現되는데 血이 筋을 滋養하지 못함에 따라 手足震顫, 肢體麻木, 屈伸不利 等の 症狀가 나타나고 熱邪가 陰을 劫奪하여 津液과 血이 耗傷되어 血이 筋을 滋養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四肢抽搐 角弓反張 牙關緊急 等 症이 나타나게 되니 이러한 症狀를 통틀어 肝風이라고 한다 하였고,<sup>26)</sup> 또한 <素問. 調經論>에 “肝藏血”이라 하였으니,<sup>4)</sup> 藏血이란 말은 血液을 貯藏하여 血液量을 調節하고 造血하고 血液成分을 調節한다는 意味로,<sup>20)</sup> 周<sup>27)</sup>는 極烈한 活動이나 發怒等으로 肝不藏血하면 脈道에 血液이 大量 流入되어 腦로 上冲하여 腦部血絡이 破損되어 出血性 中風을 일으키고, 先兆로서 頭脹頭痛, 目眩耳鳴, 兩目昏花, 記憶力減退하며 甚할 경우 肢體麻木, 半身無力하게 된다고 하여 休息시는 血이 肝으로 가야하는데 肝血이 不足하면 脈絡이 空虛하여 血이 上行하지 못해 瘀血을 形成하게 되어 腦硬塞性 中風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精神活動的 側面에서 七情中 어느 一種이 病因으로 作用하면 臟腑의 機能에 影響을 주는데 怒가 肝志이므로 怒氣가 肝病으로 쉽게 上逆되기 쉽고 이 怒氣가 肝의 病變을 일으키기 쉬우므로,<sup>20)</sup> <素問. 五運行大論>에서는 “其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風傷肝”이라 하고 <素問. 藏氣法時論>에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한다고 하고<sup>4)</sup> <靈樞. 本神篇>에 “肝藏血 血舍魂 肝悲哀動中即傷魂 魂傷即狂忘不精 不精即不正當人”이라고 하였으니,<sup>25)</sup> 魂은 隨神往來者이므로 心靜即神清하고 魂의 活動이 원활하지만 情志悲哀過多로 心亂神昏即 魂

傷하고 魂傷不安即 思維理智活動이 障礙를 받는다는 意味이다.<sup>20)</sup> <素問. 脈解篇>에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名曰煎厥”이라고 하였고,<sup>4)</sup> 鄭<sup>23)</sup>은 情緒的 要因과 中風과의 關係에서 抑鬱, 精神緊張, 暴怒 等이 각각 28%, 10%, 9%를 차지하며 이는 血液流變學的 變化에 影響을 미쳐 血壓, 血漿, 血管의 關係로 中風을 誘發한다고 하였다.

## 2. 肝과 腎의 關係(乙癸同源說)

乙癸同源 肝腎同治는 韓醫學의 五臟相關學說에 重要한 部分중의 하나로 腎系內科學<sup>28)</sup>에서는 肝은 血을 藏하고 腎은 精을 藏하므로 肝과 腎의 關係는 主로 血과 精의 關係로 表現되는데 共히 下焦에 屬해 있으며 肝陰, 肝陽, 腎陰, 腎陽 間의 關係는 相互因果의 關係로 一方이 不足하면 一方이 偏亢되고 一方이 偏亢되면 一方이 不足해지는데, <靈樞. 經脈篇>에서는 “足少陰腎脈...其直者 從腎上貫肝膈”한다고 하여<sup>25)</sup> 經絡學的 關係를 說明하고, 또한 水生木의 五行相生의 側面에서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腎生骨髓 髓生肝”한다고 하고,<sup>4)</sup> <素問. 腹中論>에 “血枯 此得之少年之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傷肝 故月事衰少不來也”라고 하여<sup>4)</sup> 病變轉化 科程에서 血枯證의 病機가 脫血로 肝을 傷하고 肝病이 腎에 이르며 혹은 精이 腎을 耗損시키고 腎病이 肝에 이르는 肝腎同病에 補陽精氣, 益肝強腎하는 肝腎同治의 理論을 처음으로 提示하였다.

張仲景은 金匱要略에서 “寸口脈 沈而弱 沈即主骨 弱即主筋 沈即爲腎 弱即爲肝...故曰歷節”이라 하고 또한 “味酸即傷筋 筋傷即緩 名曰泄 鹹即傷骨 骨傷即痿 名曰枯 ...便爲歷節也”라고 하여<sup>29)</sup> 內經의 基礎上에서 進一步하여 肝腎損傷하여 精血이 筋骨을 充養하지 못하는 것이 歷節病의 重要病機로 認識하였고, 宋代 聖濟總錄에서 “腎主腰 肝主筋 筋聚于膝 若腎臟虛損 肝元傷疲 即筋骨受病 故腰膝爲之不利”

또한 “腎開竅于耳 肝開竅于目 腎肝二臟 水木之相生也 若腎經不足 肝元者虛 水木不能相生 其竅俱不利”라고 하여<sup>30)</sup> 宋代 醫家들은 肝腎精血 相生 盛衰同府하는 生理病理關係를 明確히 認識하였고, 錢乙은 小兒藥證直訣<sup>31)</sup>에서 “目上視 手足動搖 口內生熱涎 項頸急 此肝旺 當補腎治肝也 補腎 地黃丸 治肝 瀉青丸主之”라고 하여 補腎水瀉肝火의 并進的 學術見解를 나타냈다.

金元時代에 이르러 章<sup>32)</sup>은 張元素는 水生木의 母子關係와 肝腎의 生理特性에 根據하여 肝의 陰血陽氣는 腎命水火에 本을 두고 陽이 偏亢하지 않으면 水가 虧損하지 않고 水가 虧損하면 陽이 居處를 잃는다고 하여 肝臟虛損에 補腎으로 治法을 삼음을 主張했다고 하고, 李東垣은 內外傷辨에서 腎主骨 爲寒 肝主筋 爲風 自古腎肝之病同一治 以其遞相維持也라고 하고, 丹溪는 格致餘論에서 錢乙의 說을 繼承하여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이라 하고 治療에 있어서 知, 栝으로 肝腎의 妄動하는 相火를 瀉하고 地黃 龜板등으로 腎陰을 滋養하는 治法을 重히 여기고 大補陰丸, 知柏地黃丸 같은 瀉肝火滋腎水의 意義로 方劑를 構成하여 肝腎同治의 理論과 方藥을 結合하였다.

明代 이르러 乙癸同源의 理論이 整理, 形成되는데 李中梓는 醫宗必讀<sup>33)</sup>에서 火의 種類에는 君火, 相火가 있는데 君火는 心火이고 相火는 腎과 肝의 火로 腎은 北方 壬癸에 應하고 坎卦이며 龍에 象하며 肝은 東方甲乙에 應하고 震卦이며 雷에 象하는데 龍이 起하면 火가 일어나며 雷가 起하여도 火가 일어난다. 龍은 海底에 潛하고 雷는 澤中에 藏하는데 海와 澤이 모두 水, 下인 故로 乙癸同源이라 名한다고 하고, 治法에 있어서 木無虛不可補이므로 補腎하는 所以로 補肝하는 것이고 水無實不可瀉이므로 瀉肝하는 所以로 瀉腎하는 것이다. 이는 봄의 上升之節에 龍이 不現한 즉 雷無聲하고 가을의 下降之節에 雷未收한 卽 龍不藏하니 但 龍이 海底에 歸하여야 飛發之雷가 없으며

雷가 澤中에 藏하여야 飛騰之龍이 없으니 이를 腎肝同治라하여 各家들의 醫論을 綜合 形成하였다.

近來들어 楊等<sup>34)</sup>은 乙癸同源의 臨床上에 있어 病理變化와 臨床意義에 있어서 精血不足 心脈失養, 精血不足 衝任失養, 精血不足 頭目失養, 精血不足 筋骨失養, 精血不足 肌膚失養으로 나누고, 특히 만약 肝血虧虛하거나 腎精不足時 心脈失養하는 病理科程에 이르면 臨床上 心悸, 怔忡, 失眠, 多鬱, 健忘, 肢體麻木, 神疲乏力, 目眩畏光, 或腰膝酸軟無力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3. 內風說과 平肝法의 定立, 形成

張仲景의 內風에 관한 治療法則에 關하여 王<sup>35)</sup>은 內風은 臟腑機能 失調로 風氣가 內動한 病証으로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冒眩, 郁冒, 脚攣急, 身攣動 振振欲擗地, 四肢攣攣動, 身爲振振搖 등의 症狀으로 表現하는데, 治療方法에 있어서 溫斂沖氣法, 健脾泄肝法, 酸甘化陰法, 溫腎化陰法, 補氣行水法 등으로 歸納하고, 特히 健脾泄肝法에 있어 郁冒는 病因病機가 產婦가 失血過多로 血氣兩虛하고 氣虛는 脾失健運으로 胃濁上搖하고 血虛는 肝失條達하여 郁火內生으로 脾虛肝旺의 肝風內動을 形成한다고 하고, 酸甘化陰法에서 傷寒論 29條 脚攣急에 使用된 芍藥甘草湯은 傷寒誤治로 邪氣는 去하는데 肝陰이 受損하여 肝陰이 不足하고 이에 筋脈을 營養하지 못해 脚攣急의 內風症狀을 이루는데, 芍藥甘草湯에 芍藥은 酸甘으로 營養和血하고 甘草는 補中緩急하는데 兩藥이 并用하여 陰이 回復되고 筋脈이 營養을 받아 脚攣急이 治愈된다고 보고 이러한 治法이 後世 養陰熄風의 基礎가 된다고 하였다.

宋代 聖濟總錄<sup>36)</sup> 攤緩에서 攤은 四肢不舉하고 筋脈關節이 無力하여 收攝하지 못하는 것이고 緩은 四肢는 비록 舉動하나 肢節이 緩弱하여 事物을 運用하는데 障礙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左右의 區分을 말한 것이 아니며, 原

인에 있어 氣血이 內耗하여 肝腎經이 虛해져서 陰陽이 片發하여 생기거나 또는 다른 病에 吐下하는 藥을 過度하게 服用하여 眞氣內動하고 營衛失調하여 一身을 稟養할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中風 四肢拘攣 不能屈伸에서 肝이 筋膜之氣를 藏하고 筋은 肝의 所養을 받아야 屈伸할수 있는데 萬若 經絡이 偏虛하고 風邪가 虛한 틈을 타고 機關에 客하면 筋脈이 縮急하는데 陽絡에 干하면 肩背가 拘急하니 이는 邪氣가 內盛하여 精氣가 諸筋을 營養하지 못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聖濟總錄 諸風에서는 中風의 原因으로 外感 風으로 因한 것외에 內傷, 飲食不節 等에 의한다고 하나, 姜等<sup>9)</sup>은 氣血內耗, 肝腎經虛 또는 肝主筋不能屈伸 等の 概念은 葉天士가 主張한 肝風內動의 病理와 類似한 點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概念이 中風의 發病要因의 하나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嚴用和는 濟生方의 中風論治<sup>36)</sup>에서 生命의 根은 元氣오 本은 營衛라하여 根氣가 強壯하고 營衛가 和平하면 腠理가 緻密하니 어찌 外邪가 侵入하여 해롭게 하겠는가라고 하고 喜怒, 憂思, 驚恐 혹은 飲食不節, 혹은 勞役過傷으로 中風이 發한다고 하고, 肝風이 內動하여 中風을 일으킨다는 가장 近接한 病理的 用語를 처음으로 使用하였는데 內經의 “諸風掉眩皆屬於肝”을 病理的으로 좀더 具體化하여 “肝風上攻”이란 用語를 使用하였고, 治療之大法에 萬若 內因七情으로 因한 것은 調氣가 마땅하고 外因 六淫으로 因한 것 역시 먼저 調氣한 然後에 六氣를 따라 隨証治之하라고 하고, 五臟中風中 肝風의 症狀에서 內經과는 달리 肝風은 面靑 心悶 吐逆嘔沫 脇痛頭眩 不聞人聲 偏枯筋急 曲躄而臥라고 하여 비로소 肝風을 中風의 하나로 把握하였다.

葉天士는 內經의 “諸風掉眩皆屬於肝”에 根據하여 以前의 賢明한 諸家說을 辨析하고 反復된 臨床實驗을 거쳐 融會 貫通하여 陽化內風의 獨創的인 理論을 제창했다.<sup>37)</sup> 葉天士는 臨証指南醫案 中風編<sup>8)</sup>에서 內風은 바로 몸 속

의 陽氣가 變動한 것으로 陽에 內風을 끼고 위를 顛하면 눈이 어둡고 귀에 소리가 나며 잠을 못이루게된다고 하고, 이는 肝의 生理的 特性에 대한 認識에 起因한 것으로 肝은 風木의 臟器로써 少陽相火가 寄居하고 그 바탕은 陰이고 機能은 陽이며 그 性質은 剛세며 動과 升을 主하고 반드시 腎水로 涵養하고 血液으로 濡潤하며 肺金의 機能인 清肅下降의 命으로 이를 平靜하고 中宮敦阜의 氣로 이를 培養한다면 剛勁한 質이 柔和體를 얻어 비로소 條達暢茂의 性質로 되니 무슨 病이 있겠는가. 精液이 虧損되어 肝陰이 不足하게 되면 血이 燥澁하여 熱이 發生하며 熱이 發生하면 風陽이 上升하여 竅絡을 막아 머리와 눈이 맑지 못하고 어지러워 넘어질 것 같으며甚하면 癱瘓 瘰癧 등의 症狀이 發生한다고 하고, 그 病機는 精血이 衰耗하여 水는 木을 涵養하지 못하고 木은 滋養을 적게 받아 肝陽이 亢盛에 치우치게 되면 內風이 때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臨証指南醫案의 內風動越의 原因에 대하여 童<sup>38)</sup>은 經營을 管理하여 神과 精이 損傷되면 陰이 위에서 일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內風이 움직이고 비약하게된다.; 木火體質인데 다시 여기에 鬱勃이 더해지면 肝陰이 더욱 消耗되어 厥陽이 오르게 된다.; 高齡에 水가 虧損하여 肝陽이 升逆하여 이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遺產한 뒤에 惡露가 뚝뚝 떨어지면 營血이 속에서 虧損하여 厥陽이 이로 말미암아 鼓動치게된다.; 溫熱의 邪氣가 이미 厥陰을 侵入해 들어가면 陰이 損傷되어 風陽上巔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姜等<sup>9)</sup>은 原因으로 血虛, 肝腎虛, 怒傷肝 肝氣犯胃, 怒傷精, 年老而虛風動, 陽明脈絡虛, 熱盛動風, 時令不調로 認識하였다.

臨証指南醫案의 肝風의 病機에 있어서 童<sup>38)</sup>은 肝血과 腎液이 몸안에서 마른다. 腎虛하면 液이 적어진다. 精과血이 몸안에서 虛하다 等으로 水가 木을 涵養하지 못하면 肝陽이 風으로 된다는 것을 肝風證의 基本病機로 삼아 臨床辨證上 下虛上實을 肝風辨證의 열쇠로 삼게

되는 것이고, 또한 病機를 論할 때는 肝에서 멀어질 수 없고 그렇다고 전부 肝에 대달려서 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姜 等<sup>39)</sup>은 中風에서는 口喎, 舌強言蹇, 四肢或偏身麻木, 二便不通, 頭暈目眩, 昏厥, 神志不清 등이 나타난다고 하고, 肝風에서는 頭暈, 目眩, 耳鳴, 心悸, 心煩不寐, 脇熱胸痛, 驚怖多恐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며 肝風이 中風이 發生하기 直前的 단계로써 肝風이 內動하면 비로소 內風이 되어 中風의 症狀을 發하게 되므로 肝風의 症狀은 비교적 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徐靈胎는 이를 評하여 肝風이란 中風의 한가지로 南方에 많으니 이를 따로 分類할 必要가 없다고 하였다. 童<sup>38)</sup>은 下虛의 症狀으로 四肢가 痿症으로 힘이 없이 걷고 腰膝痠軟, 骨中刺痛, 四肢麻痺, 偏枯, 손발떨림, 癱瘓 등이 나타나고 上實의 症狀으로 眼昏, 耳鳴, 不寐, 頭眩, 目珠痛, 牙肉腫痛, 脈數面赤, 脈右弦, 頭脹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治法에 있어서 臨証指南醫案 中風<sup>8)</sup>에서 寒涼한 風藥으로 泄氣降痰 시키면 眞氣가 損傷되므로 大忌라고 하고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으로 通治法을 삼고 具體的인 病理機轉에 따라 以溫柔潤, 潤之通補, 補土抑肝, 芳香宣竅兼清上痰火 등의 法을 用하고, 病勢가 純虛症일 때 人蔘, 附子를 大量으로 用하고 陰藥으로 佐하라고 하였고, 또 症狀에 따라 急할때는 먼저 開關하고 계속하여 益氣養血하면서 消痰清火宣通經絡之藥으로 佐하여 氣血이 充盈하고 脈絡이 通한즉 病이 나을 것이라 하였다. 肝風에서 “甘酸之屬宜之”라하여 生地黃, 阿膠, 牡蠣粉, 炙甘草, 山茱萸炭을 쓴다고 하고, 아울러 “身中陽化內風 非發散可解 非沈寒可清”이라는 見解를 提示하며 水不涵木하여 風陽이 上升한 症에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 介以潛之, 酸以收之, 厚味以鎮之, 或用清上清下之法을 通治法으로 症狀에 따라 清熱兼斂攝神志하거나 泄肝安胃 鎮補陽明의 法을 用하며 그 외에도 辛甘化風, 甘酸化陰, 清金平木 등의 治

法을 活用하였다. 唐<sup>39)</sup>은 補血法에 있어서 血虛生風 或은 肝腎精血 虧耗로 因한 筋骨이 濡養을 받지 못한 것은 中風後 出現하는 肢體痿廢 行走乏力 아울러 頭暈, 目眩, 耳鳴如蟬, 面色光白, 腰膝痠軟, 舌淡苔薄, 脈緩 등의 辨證上 要點이 있고 葉氏는 平肝潛陽 活血化瘀法을 多用하였다고 한다. 楊<sup>40)</sup>은 中風前兆 發病 5因으로 厥陰의 內風이 上乘하고 升騰이 지나쳐 脂液이 四末을 營養할 수 없다(升騰太過 脂液無以營養四末), 中年勞倦 陽氣不藏 內風動越, 五志氣火 交并於上, 腎精虧虛 收納無權, 內風挾痰이라고 하고, 前兆 4症으로 肢節麻木 麻痺肉瞶, 脣舌麻木, 脈弦動而眩暈이며, 論治4法으로 益陰柔肝法, 封固護陽法, 鎮補腎精法, 化痰熄風法이라고 하였다.

#### 4. 葉天士 以後 內風說과 平肝法의 發展

葉天士의 內風理論은 後代 醫家들에게 中風의 病因病機 및 治法에 많은 影響을 미쳤는데 林佩琴의 類證治裁 中風<sup>41)</sup>에서 發病의 原因이 眞陰虧者 風自內生 虛陽上冒하여 昏仆하게 된다고 하여 內因을 重視하였고, 血液衰涸하여 筋脈을 榮潤하지 못해 口眼喎斜가 생기고, 肝經風火가 經絡에 搏하고 血虛不能榮筋하여 癱瘓이 생기고, 腎氣虧極하여 遺尿가 생기며, 虛陽이 上巔하여 眩暈이 생긴다고 說明하고, 眞中風이 비록 外로부터 中한 것이지만 內虛한 까닭으로 일어나므로 먼저 通關하고 이어 養血順氣佐以消痰清火하라고 하였다. 또한 肝氣 肝火 肝風의 病機와 病症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 肝木의 氣가 鬱滯되어 經氣가 逆하여 噎, 脹, 嘔吐, 脇痛, 胸滿不食, 飧泄, 癰疽 등이 되는것은 모두 肝氣의 病症이며, 鬱滯된 木氣가 火를 發生하게 되어 吞酸, 脇痛, 失血, 厥, 痿, 狂 등의 症狀이 發生하는 것은 모두 肝火가 沖激한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化風하게 되면 眩暈, 舌麻, 耳鳴, 癱痺 등의 症狀이 發現하는데 이는 모두 肝風이

振動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張錫純의 醫學衷中參書錄<sup>11)</sup>에서 內中이라는 것은 內生한 風을 말하는 것으로 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內經의 “諸風掉眩 皆屬於肝”은 肝은 木臟으로 木火가 熾盛하여 스스로 風이 있는 것으로 肝木이 失和하여 風이 自起한다고 하고, 또한 肺氣不降 腎不納氣 衝氣胃氣의 上逆으로 臟腑의 氣化가 과도히 상승하여 血이 腦로 上湧하여 血管이나 神經을 막으므로 甚하면 神經이 機能을 잃고 昏厥 人事不省하는데 西醫의 腦充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內經에 內中風之症을 煎厥, 大厥, 薄厥이라고 表現하고 內經 脈解篇에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名曰煎厥이라고 하고 肝은 將軍之官으로 不治하면 易怒하고 怒로 因하여 熱을 生하고 이에 肝血을 耗傷하여 肝中에 寄하는 相火가 掀然히 暴發하여 氣血을 끼고 腦로 上逆하여 昏厥하게 된다고 하여 肝風內動으로 中風의 由來를 말하고 비록 中風이 外因에 의하여 激發되지만 실제로는 外感之風에 風으로 因한 內外의 熱이 相并하여 內風이 暴動하게 되는데 腦充血의 起點이 肝火 肝氣의 妄動이라 하고 肝木이 능히 中風을 生한다고 하였다.

清代 張士驥의 中風 認識에 대해 侯<sup>10)</sup>는 張士驥은 內經의 厥症과 明代 醫家 張景岳의 非風說과 西醫學의 理論을 結合하여 水火內動 肝風上搖 血氣并走于上 冲巔前後腦氣筋이라고 하고 卒倒無知 牙關緊閉 危在頃刻 等の 症狀이 나타나고 이는 外感風邪로 因한 것이 아니고 內傷氣血 腎水焦枯로 말미암는다고 하여, 治法에 있어서 清肝潛陽 鎮靜熄風法, 養血益陰 熄風鎮逆法, 瀉火滌痰 開竅通絡法, 固氣祛痰 調和營衛法, 豁痰生津 宣痹活絡法으로 概括하여 中風病 治療는 熄風潛陽, 鎮攝肝腎하는 大法으로 爲主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張山雷의 中風斟詮<sup>12)</sup>에서 張士驥이 木火가 안에서 動하여 肝風이 위로 올라가 氣血이 함께 위로 달려가 그 前後의 腦神經을 冲激한다고 한 것은 지당한 명언으로 潛陽鎮攝하고 平肝熄風하는 治法은 오로지 氣火의 上升을 治療하여 捷效

가 있다고 하였다.

王泰林은 歷代의 肝病에 대한 證治를 깊이 研究하였는데 張<sup>42)</sup>은 肝氣 肝風 肝火 同源異名說, 疏肝通絡法, 泄肝和胃法, 柔肝養肝法, 緩肝法, 熄風和陽法, 熄風潛陽法, 清肝泄火法은 葉天士의 影響을 받았다고 하고, 西溪畫室夜話錄에서 肝風初期 肝陽上亢 肝陰微傷으로 頭暈目眩 等の 症이 나타나면 熄風化陽의 治法으로 羚羊角, 鈎鈎藤, 牡丹皮, 決明, 甘菊, 白蒺藜를 用하고, 肝陽이 亢盛하고 肝陰도 損傷된 경우 滋陰潛陽而熄肝風하는데 生地, 玄參, 女貞子, 白芍藥, 菊花, 阿膠, 牡蠣를 用하고, 胃陰不足 中氣虛하여 飲食減少하며 肝風上逆者는 滋陽明 泄厥陰하는데 人蔘, 甘草, 麥門冬, 白芍藥, 玉竹 等으로 培土令風하고, 營血不足하여 肝木失養하면 肝風方走四肢하여 經絡牽徹 심하면 麻木하는데 養血熄風하는데 生地, 當歸身, 枸杞子, 何首烏, 天麻, 牛膝, 胡麻 等으로 養肝하고, 脾胃陽氣 虛弱으로 頭目眩暈 陽氣不升 髓海不足 虛風內動하면 陽虛生寒으로 清陽이 不能上升하는데 白朮, 炮附子, 炙甘草, 生薑, 大棗로 緩土於風한다고 하고, 또한 平肝하는 藥物로 金櫻子, 鈎鈎藤, 蒺藜, 橘葉이 해당되고 鎮肝하는 藥物로 石決明, 龍骨, 牡蠣, 龍齒, 金箔, 代赭石을 用한다고 하였다.<sup>43)</sup>

張山雷는 中風斟詮<sup>12)</sup> 自序에서 무릇 卒倒 昏瞶하고 痰과 氣가 올라가 막히는 中風은 모두 肝火가 스스로 旺盛하여 風을 化生하고 煽動하여 그 氣血을 激動시켜 함께 위로 달려가 곧장 腦를 冲激하고 犯하여 神經을 뒤흔드는데 연유한다고 하고, 脈法總論에서 內風이 動하면 氣와 火가 上升하여 血이 上涌하여 腦神經을 衝擊하므로 그 脈은 弦, 勁, 滑, 大, 浮, 數, 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甚한 者는 上溢하고 促擊하며 虛, 大, 散亂하다고 하였다. 論閉證宜開에서 갑자기 昏仆하는 것은 모두 肝陽이 上乘하여 氣血이 涌솟음쳐 腦로 衝擊하면서 들어가 神經을 요란한 소치로 반드시 胸中의 痰濁을 끼고 泛溢하여 위로 上升하여 清竅를 막는데 이 증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막

힌 것을 여는 것을 急務로 하고 潛陽降氣와 鎮逆化痰은 다음이라고 하였다. 論脫證宜固에서 갑자기 瘳厥하는 것은 대부분 肝陽이 上升하여 木火가 放恣하므로 말미암는데 이는 熱痰이 壅塞하여 性靈을 蒙閉하므로 대개 閉證에 屬하며 眞陰이 虛竭되어 無根之火가 창출간에 飛騰하여 氣와痰이 솟구쳐 올라가 위로 神志를 가려 갑자기 瘳厥하는 것도 있는데 治法은 더욱 眞陰을 攝納하고 元氣를 固護하는 것을 急先務로 삼고 戀陰益液하는 藥劑를 마땅히 虛陽을 潛鎮하는 法과 合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論腎陰漸宜滋鎮에서 養水滋腎하는 治法은 원래 肝陽을 다스리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오직 潛降攝納한 뒤에 氣火가 이미 평정되고 痰濁이 막히지 않으면 곧 서서히 滋養을 도모하여 根基를 튼튼하게 하면 거의 木의 根本인 水의 근원이 滋鎮 育成되어 肝陽이 재차 暴動할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 5. 近世 書籍 및 雜誌를 통한 平肝法의 近況

蔡<sup>41)</sup>는 中風前驅症狀인 中風先兆에 40세 이상의 高血壓, 動脈硬化, 心臟病, 糖尿病의 過去歴이 있거나 家族歷中 中風이 있거나 陽旺體質인 患者들을 대상으로 外部誘發要因이 없이 24時間내 回復되는 偏癱, 偏盲, 或 昏厥이 있거나 顔面 或 四肢의 麻木感, 一時의 健忘, 失語症이 1, 2초만에 回復되고 昏昏慾睡, 惡心欲吐, 眩暈, 심하면 跌仆하거나, 身體 肌肉抽跳가 일어나는 症狀에 대하여 豨薺草, 丹蔘, 何首烏, 桑椹子, 當歸, 川芎, 桑葉, 菊花, 白蒺藜, 水蛭 등으로 구성된 滋陰活血熄風方을 投藥하여 비교적 良好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고, 病機를 臟腑가 內虛하여 陰血이 不足하고 氣陽이 推動하는데 無力하여 血瘀凝滯하므로 肝木의 風陽이 襲絡乘竅한다고 보았다.

朱 等<sup>45)</sup>은 60例의 肝陽上亢 患者의 血漿 vWF, 6-酮-前立腺素 F<sub>1a</sub>, 血栓 B<sub>2</sub>, 抗凝血酶

Ⅲ의 血栓前 狀態關係 研究에서 血漿 vWF, 血栓B<sub>2</sub>의 수치가 높고 6-酮-前立腺素 F<sub>1a</sub>, 抗凝血酶 Ⅲ가 低下되어 있으며, 이는 肝陽上亢證의 血管內皮細胞와 血栓前狀態의 病理와 一致한다고 보고 梗塞性 腦血管 疾患을 豫防治療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周<sup>46)</sup>는 眩暈 記憶力減退의 腦組織 缺血性 現狀이 나타나는 老人 腦動脈硬化症 患者 30例에서 溫膽湯合天麻鉤藤飲加減 治療하여 비교적 良好한 效果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腦動脈硬化로 因한 眩暈 等の 症狀이 肝腎陰虛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治療에 있어서 補腎滋肝, 育陰潛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金 等<sup>47)</sup>은 鎮肝熄風湯이 交感神經 β-receptor에 作用하여 血壓을 降下시키며 血清 Total Cholesterol치의 減少效果가 있다고 하였다.

高等<sup>48)</sup>은 出血性 中風 急性期는 病機와 臨床症狀이 비교적 복잡하여 活血化瘀法으로 概括하여서는 안되고 患者의 狀態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不止血而能止血이라고 하여 中風閉證, 陽亢, 或 陰虛陽亢者는 平肝潛陽, 育陰潛陽法으로 涼血活血之品을 佐로 삼아 不止血而收止血이라고 하였다.

金 等<sup>49)</sup>은 腦出血의 主要原因이 陰陽氣血失常 痰濕內盛으로 氣血逆亂되어 肝陽搖動되어 痰濁이 上犯한 것이며 分型治療에서 中經絡은 肝陽暴抗 風火上搖證, 風痰瘀血 痹阻脈絡證, 痰熱腑實 風痰上搖證, 氣虛血瘀證, 陰虛風動證 등의 5個類型으로 나누고 中臟腑는 風火上搖 清竅證, 痰濕蒙蔽 心神證, 痰熱內弊 心竅證, 元氣敗脫 心神散亂證의 4個 類型으로 나누며 曲勤은 中風 230例에서 腦出血 27例를 肝陽暴抗, 痰濕阻絡, 痰熱腑實, 肝腎陰虛, 氣虛血瘀의 5個 類型으로 나누고 清熱熄風, 滋陰潛陽, 活血化瘀하는데 羚羊鉤藤湯加減을 주고, 滋陰潛陽, 鎮肝熄風, 活血化瘀하는데 鎮肝熄風湯加減을 주었으며, 分期治療에서 急性期는 中臟腑 陽閉者는 辛涼開竅, 清肝熄風하는데 먼저 安宮牛黃丸을 주고 이어 羚羊角湯加減을 주며, 中經絡



은 肝腎陰虛 肝陽上亢型, 氣虛血瘀 絡脈瘀阻型, 痰濕中阻型 등으로 論治하고, 恢復期에는 肝腎陰虛, 氣虛血瘀, 痰濕血瘀, 腎虛精虧, 肝陽暴抗 등으로 나누어 治療하여, 後期는 扶正固本, 再發防止를 爲主로하여 94.89%의 有效律을 거두었다고 한다.

毛<sup>50)</sup>는 風陽痰火型 出血性 中風 32例에서 羚羊角 3g, 鈞鈞藤 12g, 生地黃 15g, 牡丹皮 10g, 石決明 30g, 珍珠母 30g, 牛膝 15g, 天竺黃 10g, 全蝎 3g, 竹茹 10g으로 구성된 清熱熄風, 豁痰開竅하는 羚羊鈞藤湯을 주어 75%의 有效律이 있었고, 化痰通腑, 平肝熄風法에서 突然 昏仆 人事不省 左側 上下肢癱瘓 口眼喎斜에 瓜蒌 20g, 牛膽南星 12g, 大黃 12g(後下), 芒硝 10g(沖服), 天麻 15g, 鈞鈞藤 15g(後下), 生白芍 20g, 代赭石 20g, 天竺黃 10g으로 구성된 星襲承氣湯加減을 투여하고, 또한 高血壓性 腦出血로 蜘蛛膜下出血이 續發되어 意識不明 左側癱瘓 抽搐 便秘 腹滿에 鈞鈞藤 15g(後下), 大黃 10g(後下), 羚羊角粉 3g(沖服), 牛膽南星 10g, 天竺黃 10g, 川貝母 10g, 郁金 10g, 白菊花 10g, 天麻 10g, 石菖蒲 12g으로 구성된 羚羊鈞藤湯合菖蒲郁金湯으로 好轉되었다고 한다.

顧<sup>51)</sup>는 震顫麻痺는 中醫學의 肝風의 範疇로 老年 氣血虛弱으로 肝腎精血이 衰하여 陰不斂陽하여 肝風內動한 所致로 氣血을 補하고 滋補 肝腎之精血하면 肝風自熄한다고 하여, 方中에 益氣養血 滋補肝腎之品을 重用하였는데 桑寄生, 白芍藥이 骨格筋의 張力을 向上시키고 灸地龍, 白僵蠶이 通絡熄風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다.

黃<sup>52)</sup>은 腦血栓形成後遺症을 中經絡의 範疇로 보고 頭暈, 失眠, 舌紅 苔黃厚乾, 脈弦滑하는 下虛上實者는 鎮肝熄風湯에 祛風通絡하는 海風藤, 絡石藤을 加하면 더욱 效果가 顯著하다고 하고, 파킨슨씨병은 老年 氣血이 이미 虧損하여 肝腎이 不足하고 筋脈이 失養하여 虛風이 內動하여 震顫하는 것으로 鎮肝熄風湯에 重鎮安神하는 珍珠母와 活絡祛風하는 絡石藤을 加하여 比較적 良好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

였다.

孟等<sup>53)</sup>은 鎮肝熄風湯 方劑構成 解析에서 上衝하는 氣血을 下行시키기위해 牛膝을 重用하여 君으로 삼고, 生赭石, 生龍骨, 生牡蠣, 生龜板으로 鎮肝降逆하고, 玄蔘, 麥門冬으로 清肺氣 肺中清肅之氣 下行토록하여 스스로 肝木을 鎮制하도록하고, 茵陳, 川楝子, 生麥芽 三味로 君藥의 肝陽之有餘를 清泄하고 肝氣의 郁滯를 條達하여 肝陽의 平降潛鎮에 유리토록 하여 鎮肝熄風湯이 비록 鎮肝熄風의 良劑이지만 臨床上 隨證加減하는데, 肝陰虛가 심할때는 牛膝, 白芍藥, 天門冬, 玄蔘을 重用하여 滋養하고, 만약 肝陽이 浮越하고 虛風上搖者는 代赭石, 龍骨, 龜板을 重用하여 潛鎮하라고 하고 現代 腦血管疾病의 研究와 治療에 意義가 있다고 하였다.

彭<sup>54)</sup>은 高血壓의 過去歷이 있고 突發的으로 右側 半身不遂가 나타난 CVA患者의 症狀이 意識障礙 右側肢體拘急 口眼喎斜 失語 兩觀微紅 頭暈頭痛 耳鳴 煩躁不安 脈弦細數이 나타날 때 中風에서 中經絡으로 診斷하고 肝腎陰虛 風陽內動으로 育陰潛陽 熄風通絡하는 鎮肝熄風湯을 加減하여 川牛膝, 龍骨, 牡蠣, 代赭石, 丹蔘, 葛根, 山楂 각 30g, 玄蔘, 龜板, 赤芍, 天門冬, 麥芽 각15g, 枸杞, 地龍 각12g으로 有效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였다.

趙<sup>18)</sup>는 腦出血 急性期 患者 84例에서 天麻 20g, 鈞鈞藤 20g, 羚羊角 2g, 黃芩 15g, 全蝎 5g, 梔子 15g, 生地 20g, 澤瀉 15g, 車前子 15g, 夏枯草 20g, 石決明 25g, 益母草 15g을 基本方으로 痰이 많으면 牛膽南星 15g, 竹茹 15g, 石菖蒲 15g으로 처방된 熄風湯으로 治愈한 44例中에서 治愈 65.9%, 好轉 27.3%으로 有效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고, 方中에 天麻, 鈞鈞藤, 全蝎, 石決明은 平肝潛陽熄風의 效能이 있고 羚羊角, 黃芩, 梔子, 夏枯草, 生地黃은 清熱熄風의 效能이 있으며 牛膽南星, 竹茹, 石菖蒲는 清熱化痰作用이 있다고 方解하고, 腦出血 患者는 意識障礙 肢體癱瘓하며 長期間 寢대생활로 합병감염에 걸리기 쉬우니 熄風湯의

清熱化痰 作用이 抗感染 作用에 有效하며, 또한 腦水腫이 계속 加重될 때 熄風湯이 通利二便, 平肝熄風하는 效能이 있어 脫水와 降血壓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

魏<sup>17)</sup>는 鎮肝熄風으로 中風을 治驗한 例에서 懷牛膝, 生赭石 各 30g, 生龍骨, 生牡蠣, 生龜板, 生杭芍, 玄蔘, 天門冬 各 15g, 川楝子, 生麥芽, 茵陳 各 6g, 甘草 6~9g에 痰熱腑實者는 大黃 15g을 加하고, 肝陽暴抗者는 生石決明 20g, 草決明 25g을 加하고, 頭脹痛 面紅者는 菊花, 鈞鈞藤 各 10g을, 陰虛風動者는 玄蔘, 生地黃 各 30g, 痰多者는 南星 15g, 半夏 10g을 加하고, 痰濁蒙蔽者는 石菖蒲 30g을, 瘀血阻絡者는 紅花, 全蝎, 蜈蚣 等の 祛瘀通絡之品을 사용하여 正常生活을 할 정도로 回復은 15例, 言語 意識이 回復되어 基本 生活을 할 정도로 好轉되는 경우는 33例로 總有效律 95%를 얻었다고 하였다.

沈<sup>55)</sup>은 5年間의 梗塞性 腦卒中의 中醫, 中西醫結合治療에 關하여 曾씨는 中風을 5個 段階로 나누어 治療했는데 특히 病程 1個月이내는 平肝潛陽, 化痰除濕 위주로 치료하고 1個月後는 活血化瘀를 主로하며 平肝潛陽, 化痰除濕하는 治療를 經하며 恢復期는 活血化瘀를 運用한다고 하고, 張子明은 急性期和 恢復期로 나누어 急性期에는 風痰痹阻 脈絡瘀滯, 陰虛陽亢 肝熱絡阻, 痰瘀互結 瘀血阻絡의 3型으로 나누고 大棗芎湯, 天麻鈞藤飲, 滌痰湯을 分別하여 用하며 恢復期 治療에서 肝腎陰虛할 때는 一貫煎合蟲類藥하며 精神症狀이 있을때는 平肝潛陽 養心定志하는 治法으로 珍珠母丸合磁朱丸을 投藥한다고 하였다.

董等<sup>56)</sup>은 中風患者의 急性期後 恢復期の 偏癱 等에 대해 益氣活血通絡, 祛風除痰搜絡, 增補肝腎方面을 治法으로 들며 특히 增補肝腎方面에 있어 만약 肝腎이 不足하여 筋骨失養되어 作強無力하여 偏癱後期에 肢節酸痛하고 無力하고 腰膝疲軟不甚者는 肝腎精血 衰少한 것으로 마땅히 鎮補眞陰, 滋養精血하며 아울러 活血通絡으로 佐하는데 地黃飲子로 治方하고,

만약 肝腎陰虛로 風陽內動하여 強硬拘攣, 偏癱, 血壓의 持續的 偏高하는데는 平肝育陰潛陽이 마땅하고 天麻鈞藤飲加減으로 治方한다고 하였다.

孫<sup>57)</sup>은 高血壓性 腦出血로 手術한 後 患者 30例에서 症狀에 따라 肝腎陰虛, 痰阻血瘀, 氣虛血瘀로 辨證하고 특히 肝腎陰虛型은 18例로 60%를 차지하며 出血部位는 구뇌 기저절로 中風症狀外에 煩躁, 失眠, 眩暈, 耳鳴, 手足心熱, 口乾咽燥, 舌質紅絳 或 暗紅, 脈弦細의 症狀이 있으며 張景岳이 創製한 腎陰不足 胃火旺盛으로 困한 牙疼 頭疼에 쓰이는 玉女煎을 응용하여 比較적 良好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였다.

曹<sup>19)</sup>는 中年老人에게 比較적 多發하는 만성 질환으로 頭部, 手足, 肢體의 震顫麻痺, 肌肉強直, 肌體拘緊 等の 활동이 불리한 震顫麻痺 17例 患者에서 4型으로 辨證하여 肝陰不足 虛風內動型에 一貫煎合羚羊鈞藤湯加減하여 滋補肝腎 養陰熄風하는데 生熟地 各 15g, 白芍藥 15g, 山茱肉 10g, 石決明 15g, 生牡蠣 20g, 白僵蠶 10g, 天麻 10g, 牛膝 10g, 當歸 10g, 桑寄生 20g, 甘草 6g으로 治方하고, 肝氣郁結, 氣滯血瘀型에 鎮肝熄風, 活血通絡하는 鎮肝熄風湯合通竅活血湯加減으로 天麻 10g, 鈞鈞藤 10g, 石決明 15g, 牛膝 10g, 桑寄生 20g, 當歸 10g, 桃紅 各10g, 郁金 10g, 沈香 6g, 生赭石 15g, 白芍藥 15g, 川楝子 12g, 香附子 12g, 丹蔘 15g, 石菖蒲 10g, 甘草 6g으로 處方하고, 氣血兩虛, 筋脈失養, 脈絡瘀阻型에는 補氣血 熄風通絡하는 歸脾湯, 補陽還五湯, 天麻鈞藤飲을 加減하는데 人蔘 10g, 熟地 15g, 白芍 15g, 當歸 10g, 白朮 10g, 云苓 20g, 黃芪 20g, 天麻 10g, 鈞鈞藤 12g, 五味子 15g, 川芎 10g, 丹蔘 20g, 地龍 10g, 全蝎 10g하고, 脾虛濕重, 痰熱動風型은 熄風潛陽, 化痰利濕, 通經活絡하는데 天麻鈞藤飲, 香砂六君子湯으로 加減하여 半夏, 牛臈南星, 枳實, 陳皮, 天麻, 鈞鈞藤, 牛膝, 黃芩, 白僵蠶, 竹瀝 各10g, 云苓, 石決明 各15g, 桑寄生 20g, 甘草 6g으로 處方하여, 震顫麻痺

綜合證에 病機를 肝에 있다고 보고 鎮肝熄風, 滋陰潛陽, 滋補肝腎, 活血通絡하는 鎮肝熄風湯, 羚羊鉤藤湯, 杞菊地黃湯으로 隨證加減하여 비교적 良好한 效果를 거두고 또한 病程이 짧고 年齡이 적을수록 豫候가 良好하다고 하였다.

胡<sup>58)</sup>는 丘腦小竈 梗塞 혹은 出血로 인한 反側 舞蹈證에 震掉 痙病 風顛으로 診斷하고 平肝熄風, 化痰通絡하는 治法으로 味酸苦性微寒하고 養血榮筋, 緩急柔肝의 效能이 있는 白芍藥을 重用하고 傷寒論의 芍藥甘草湯의 意味에서 甘草의 甘酸化陰, 緩急止痛하는 效能을 利用하고, 當歸, 熟地, 阿膠로 養血補腎하여 根本을 固건히 하고 羚羊粉의 鹹寒한 性味로 平肝熄風, 涼血解毒하고 여기에 天麻, 鈎鉤藤, 牡蠣, 珍珠母로 平肝熄風潛陽하는 效能을 더하고 鷄血藤, 丹蔘으로 化痰通絡하여 良好한 效果를 거두었다고 한다.

李<sup>59)</sup>는 腦組織의 彌滿性 萎縮, 腦重量 減少, 腦室擴大 등의 病理的 特徵이 있는 慢性 進行性 精神衰退의 疾患으로 老年性 痴呆를 정의하고, 韓醫學의 範疇에 躁症, 郁症, 呆症의 範疇로 간주하여 肝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하여 臨床辨證으로 頭暈目眩, 煩躁易怒, 健忘失眠, 口苦咽乾, 言語不清, 便秘溲赤하면 肝陽痰熱挾瘀型으로 平肝熄風, 清熱化痰하는 天麻, 鈎鉤藤, 當歸, 生地黃, 赤芍藥, 生赭石, 三棱, 蓬朮, 羚羊角粉으로 處方하고, 頭暈眼花, 耳鳴耳聾, 發白齒落, 腰膝痠軟, 肢體麻木, 手足震動, 少言, 思惟混亂, 問는말에 大답을 하지 않고 反應이 느리면 肝腎陰虛挾瘀型이라고 하여 滋補肝腎, 活血養腦하는 治法으로 一貫煎에 山茱萸, 桑寄生, 鱉甲, 川芎, 丹蔘 등을 加하여 治方하였다.

中醫內科學<sup>60)</sup>에서 卒然昏仆, 人事不省, 또는 갑자기 口眼喎斜, 言語不利, 半身不遂하거나 或不經昏仆而僅以喎僻不遂를 主症으로 하는 疾病으로 정의하고, 中風의 대다수가 肝腎陰虛하여 陰不潛陽하므로 陽亢風動하여 氣血痰火가 위로 逆上하여 經絡을 橫竄한 所致라 하였는데, 病因으로 生活失節 情志過極 年齡體質

久病失調 등으로 보고 病機는 虛(陰虛, 氣血虛), 火(肝火, 心火, 痰火), 氣(氣逆, 氣陷), 血(血瘀), 風(肝風, 外風), 痰(風痰, 濕痰)의 六端으로 歸納된 다하고 그중 臨床所見上 肝腎陰虛로 陽亢風動, 氣升血逆으로 형성된 下虛上實 本虛標實이 근본적 病機로 本虛는 中風의 異中之同으로 風火痰氣血等은 標實로 中風의 同中之異로 六端이 일정 條件下에서 相互 影響을 미쳐 作用하여 發病하는 것으로 辨證施治에서 神志의 變化가 없이 陰虛肝旺, 肝風內動으로 인한 中經絡의 範疇에는 臨床表現上 外感之症이 없이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發病前 先兆症狀이 있는 경우가 많고 治療에 있어서도 肝腎虧虛의 程度나 肝陽上亢의 輕重에 따라 滋陰과 潛陽의 比重을 결정하고 急卽治標의 원칙에 따라 鎮潛熄風之品을 重用하여 風陽의 亢盛을 막고 氣血이 上逆하지 않도록하는데 肝風은 痰火가 經絡을 竄走하여 痰涎壅盛 苔膩脈弦하는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清化痰熱藥과 滋陰藥을 用하는데 滋陰이 濕을 조장하지 않도록하고 化痰이 傷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清泄肝熱 겸 榮血安神하는데 天麻鈎鉤藤飲, 鎮潛清降 겸 舒肝和中하는 鎮肝熄風湯, 熄風止痙 겸 化痰通絡하는 羚羊鉤藤湯을 구별하여 治方하고 本증이 輕減하면 滋補肝腎하는 杞菊地黃丸을 常服하면 效果가 좋다고 하였다. 閉證에서 臨床上 突然昏仆 人事不省 兩手握固 牙關緊閉 口噤不開 大小便閉 肢體強痙하는 一般症狀 後에 熱象의 有無에 따라 陽閉와 陰閉를 구분하는데 陽閉에서 至寶丹, 安宮牛黃丸으로 辛涼開竅한 다음에 羚羊角湯加減으로 清肝熄風, 滋陰潛陽하고 恢復期에 半身不遂에 肝腎虧損, 筋骨失養者는 肝腎을 滋補하고 強筋起痿하는 地黃飲子를 加減하고 만약 肝陽上亢하여 脈絡瘀阻한 者는 다시 鎮肝熄風湯이나 天麻鈎鉤藤飲加減을 使用하고 또한 言語不利도 風痰阻絡과 腎虛精虧로 나누어 風痰阻絡型에 解語丹加減에서도 天麻, 全蝎, 牛膽南星, 天竺黃의 平肝熄風祛痰이 重用되었고 腎虛精虧에도 滋補肝腎하는 地黃飲子が 重用되었다.

實用中醫內科學<sup>7)</sup>에서 肝腎陰虛 風陽上搖證은 神志障礙없이 半身不遂 爲主로 中經絡에 해당하고 發病後 1週日間 變化가 비교적 많으며 적당한 조치로 偏癱은 점차 輕減하며 1~2週에 恢復期로 들어가며 豫候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만약 重證될 경우 비록 대량의 熄風平肝 藥物을 使用하더라도 內風이 動하여 마침내 恢復할 수가 없게 되므로 1週日內 病勢가 점점 惡化되어 더욱 偏麻痺가 加重되고甚하면 情志不清에 이르러 中腑症이 된다. 肝腎陰虛이외에 虛風內動의 急性期에는 七情의 損傷에 主意가 요구되며 만약 본증에 情志火가 激上되어 重複發生될 경우 中臟症이 出現할 수 있다. 治療에 있어 먼저 鎮肝熄風爲主로 추정하여 效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通絡化痰시키고 최후에는 滋陰潛陽, 補益肝腎의 藥品으로 固本시켜 內風이 搖動하는 것을 杜絶시키고 病情이 순탄하게 恢復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肝系內科學<sup>20)</sup>에서 肝風內動은 半身不遂, 震顛, 四肢麻木, 口眼喎斜, 抽搐 등 筋運動障礙 症狀와 함께 頭痛 眩暈을 발현하며 內外風으로 나날때 內風에 속한다고 하고, 原因 및 症狀에 대해 下衰 腎液不營 營液內耗 肝陰不足 水虧 營虛 氣虛於上으로 因하여 眩暈跌仆 左肢偏痿 舌絡不和 呼吸不爽 痰火上蒙 目泛舌強 背脊不舒 溲淋便瀉 心悸少寐 掉搖 등이 발생하고, 操持煩勞 怒動肝風 肝膽內風自動 內風動 陽升化風 肝風突起 驚恐惱怒動肝 思慮煩勞 情懷鬱勃로 因하여 頭眩耳鳴 目珠痛 筋脈脇樞 喉痺 心悸蕩漾 頭中鳴 神呆不語 牙關緊閉 咽喉如有物阻 環口牽動 舌暗 筋惕肌麻 頭暈 喉舌乾苦 등이 發生하고, 內風不熄 相火肝風上竄 肝膽風火上鬱로 因하여 夜不得寐 胸膈間時閃火藥欲動 目跳 頭暈頭面清空之筋攣不和 등이 發生한다고 하고, 또한 肝風이란 外感風과 區別하기 위해 指稱되어졌으며 이것의 病變과정은 內動하게 되는 것으로 肝風內動은 실제로 風氣內動과 같은 의미로 使用되고 近世諸家의 病理說은 葉天士의 內風病理說을 中心으로 여기에 河間

의 主火說 東垣의 主氣說 丹溪의 主痰說의 內因의인 範疇를 포함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肝陽化風, 熱極生風, 血虛生風으로 要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6. 平肝藥物의 活用

本草學 平肝藥<sup>14)</sup>에서 平肝熄風 혹은 平肝潛陽시키는 作用을 가진 藥物을 平肝藥이라 정의하고 구체적인 效能과 應用에 따라 羚羊角, 鈞鉤藤, 天麻, 白僵蠶, 全蝎, 蜈蚣, 蚯蚓, 決明子 등의 平肝熄風藥과 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등의 平肝潛陽藥으로 分類하였다.

그러나 中藥大全<sup>66)</sup>에서는 安神藥及平肝熄風藥에서 重鎮安神藥(琥珀, 珍珠, 龍骨, 牡蠣, 朱砂, 磁石)과 養心安神藥(遠志, 酸棗仁, 柏子仁, 合歡皮) 및 平肝熄風藥(天麻, 鈞鉤藤, 羚羊角, 全蝎, 蜈蚣, 白僵蠶, 地龍, 石決明, 代赭石, 玳瑁)으로 分類하여 質重한 金石類와 介類가 心神不寧의 實證에 活用된다고 하였고, 中藥學<sup>16)</sup>에서는 平肝息風藥에서 羚羊角, 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玳瑁, 代赭石, 鈞鉤藤, 天麻, 刺蒺藜, 決明子, 全蝎, 蜈蚣, 白僵蠶, 地龍, 生鐵落으로 包括하여 分類하고 小結에서 平肝熄風藥(羚羊角, 鈞鉤藤, 天麻, 全蝎, 蜈蚣, 白僵蠶, 地龍, 玳瑁)과 平肝潛陽藥(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代赭石, 刺蒺藜, 決明子)으로 兩分할 수 있다고 하였다.

蜈蚣은 蜈蚣科(왕지네과; Scolopendridae)에 속한 동물인 왕지네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의 건조체로 性은 溫 有毒하고, 味는 辛하며 肝經으로 歸經한다고 하였다.<sup>14)</sup>

楊<sup>61)</sup>은 鎮痙熄風, 解蛇毒의 功效가 있으며 急慢驚風, 破傷風, 痙攣抽搐, 瘡瘍腫毒, 瘰癧潰爛, 頑固性 頭痛 혹은 抽掣疼痛, 風濕痺痛 등을 主로 治療한다고 하였으며 口眼喎斜에는 防風 혹은 天南星, 半夏, 白芷, 麝香 혹은 全

蝎, 釣鉤藤, 白附子, 白僵蠶을 配伍하여 使用한다고 하였다.

張<sup>11)</sup>은 蜈蚣은 走竄之力이 가장 신속하여 內로는 臟腑에 外로는 經絡에 무릇 氣血의 凝集된 곳을 모두 능히 開通시키는 作用을 한다. 그 性은 遂風에 能한데 內部로는 肝風內動, 驚癇眩暈, 抽掣癱瘓, 小兒諸風을 治療하며 外로는 經絡中風, 口眼喎斜, 手足麻木 등을 治療한다고 하고, 또한 蜈蚣은 節마다 腦가 있으니 곧 動物類의 至異한 것이므로 性이 能히 腦에 入하여 腦髓神經을 善理하여 그 所司를 實하지 아니하므로 驚癇의 病이 自癒한다고 하였다.

藥理學的 性分으로 2 種類의 蜂毒과 類似한 有毒性分인 Histamin樣 物質과 溶血性 蛋白質을 함유하여<sup>14)</sup> 中風治療에 있어서 中華人民共和國 藥典에서는 蜈蚣의 用量을 2.5 ~ 4.5g까지 使用할수 있다고 하고,<sup>62)</sup> 張<sup>11)</sup>은 中風과 破傷風 後 抽掣에 生箭芪 6錢, 當歸 4錢, 羌活 獨活 全蝎 各 2錢, 全蜈蚣 大者兩條로 煎湯하여 服用한다고 하였다.

況<sup>63)</sup>은 腦血管 疾患의 治療에 蜈蚣을 活用하였는데 腦出血 急性期에 蜈蚣의 熄風通絡, 化痰하는 效能을 利用하여 血腫의 疏散을 촉진시키고 血管의 通暢을 良好하게 하며 後遺症期에는 通絡散結하여 上下肢不利 等の 恢復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急性期에는 重用하고 後遺症期에는 少量을 使用하는데 보통 急性期에는 蜈蚣 6條에 水蛭 15-30g, 地龍 20g을 配伍하여 使用하고 後遺症期에는 蜈蚣 2-3條에 水蛭, 地龍, 白僵蠶 各 6-9g, 白花蛇, 壁虎 各 5g을 辨證 方藥中에 加味하여 使用한 結果 10여 例의 腦出血 患者에서 有效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였다.

地龍은 巨蚓科(지렁이과; Lumbricidae)에 屬한 環節動物인 參環毛蚓(廣地龍) *Pheretima aspergillum* (E. PERRIER) 과 縞蚯蚓(土地龍) *Allolobophora caliginosa* (SAVIGNY) *trapezoides* (ANT. DUGES)의 乾燥體로 性은 寒 無毒하고 味는 鹹한데 肝 脾 肺經으로 歸

經한다하고 또한 清熱定驚, 通絡, 平喘, 利尿하는 效能이 있어 高熱神昏, 驚癇抽掣, 關節痺痛, 肢體麻木, 半身不遂, 肺熱喘咳, 尿少水腫, 高血壓 등을 治療하는데 良好하다고 하였다.<sup>14)</sup>

中藥大辭典<sup>64)</sup>에는 降壓作用의 경우 地龍 팅크, P - Riboflavine에는 緩慢하지만 持續的인 降壓作用이 있는데 그 降壓의 原理는 脊髓以上의 中樞神經系統에 직접적으로 作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혹은 一種의 내감수기를 통과하는 반사 또는 中樞에 影響을 미쳐 部分的으로 內臟血管을 下降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金<sup>65)</sup>은 溶栓 作用에 대해 1983년 Lumbricidae科 蚯蚓 水提物에는 fibrin 및 profibrinolysin 活性化 物質에 作用하며 직접적으로 溶解시키는 效能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臨床的으로 腦血栓 및 成人의 高血粘度綜合證 患者 38例에서 蚯蚓水提物을 30 ml/d를 14일간 口服시키는 것을 一療程으로 治療할 경우 赤血球壓積, 血漿粘度, 全血粘度, 全血還元粘度, fibrin, 혈침 等の 數值가 현저하게 改善되어 腦血栓 患者의 血液流變學的 異常이 명확히 改善되었다고 하였다.

全蝎은 蚺蝎科(전갈과; Buthidae)에 屬한 昆蟲인 全蝎(蚺蝎) *Buthus martensi* KARSCH의 乾燥體로 性은 平 有毒하고, 味는 辛하며 肝으로 歸經하며 熄風止癱, 通絡止痛, 解毒散結하는 效能으로 小兒驚風, 抽掣 瘓瘓, 破傷風症, 風濕頑痺, 片正頭痛, 瘡瘍, 癰瘻을 治療한다고 하였다.<sup>14)</sup>

張<sup>11)</sup>은 善入肝經, 搜風發汗, 治驚癇抽掣, 中風口眼喎斜, 或周身麻痺, 其性雖毒轉善解毒, 消除一切瘡瘍, 爲蜈蚣之伍藥, 其力相得益彰也라고 하였다.

天麻는 蘭科(난초과; Orchidaceae)에 屬한 多年生 寄生草木인 天麻 *Gastrodia elata* BL.의 塊莖을 乾燥한 것으로 性은 平 無毒하고, 味는 甘하여 肝으로 歸經하며 平肝熄風, 定驚止癱하는 效能으로 頭痛眩暈, 肢體麻木, 小兒驚風, 癲癇抽掣, 破傷風症을 治療한다고 하였다.<sup>14)</sup>

中藥大全에서는 頭痛, 眩暈을 治療하는 要藥으로 鈎鈎藤, 菊花와 配伍하여 肝虛로 因한 高血壓, 動脈硬化에 應用되고, 또한 全蝎, 白僵蠶와 配伍하여 傳染病으로 因해 일어나는 腦神經刺戟症狀를 治療한다고 하였다.<sup>66)</sup>

中藥學에서는 天麻가 平肝潛陽의 效能으로 肝陽上亢으로 因한 眩暈, 頭痛을 治療한다고 하고, 또한 鎮痛, 抗炎, 降壓 및 免疫活性化하는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16)</sup>

鈎鈎藤은 茜草科(꼭두서니과; Rubiaceae)에 屬한 常綠 木質藤本인 鈎藤 *Uncaria rhynchophylla* (MIQ.) JACKS.과 大葉鈎藤 *U. macrophylla* WALL., 毛鈎藤 *U. hirsuta* HAVIL., 華鈎藤 *U. sinensis*(OLIV.) HAVIL. 또는 無柄科鈎藤 *U. sessifructus* 의 갈고리가 달린 가지를 乾燥한 것으로 性은 微寒(涼) 無毒하고 味는 甘하여 肝, 心包로 歸經하며 清熱平肝, 熄風止癎하는 效能으로 頭痛眩暈, 驚癇抽搐, 妊娠子癇, 高血壓症을 治療한다고 하였다.<sup>14)</sup>

中藥學에서는 鈎鈎藤이 降壓作用이 良好하여 肝熱陽亢으로 因한 高血壓에 좋다고 하고, 20분이상 달이면 降壓效果가 低下하므로 不宜久煎이라고 하였다. 또한 催眠作用은 없으나 顯著的 鎮靜效果를 가졌다고 하였다.<sup>16)</sup>

牡蠣은 牡蠣科(굴과; Ostreidae)에 屬한 軟體動物인 굴 *Ostrea gigas* THUNB. 및 同屬 近緣動物의 貝殼을 乾燥한 것으로 性은 微寒 無毒하고, 味는 鹹하여 肝, 膽, 腎經으로 歸經하고 平肝潛陽, 軟堅散結, 收斂固澀하는 效能으로 驚悸失眠, 眩暈耳鳴, 癥瘕痞塊, 自汗盜汗, 胃痛泛酸을 治療한다고 하였다.<sup>14)</sup>

中藥學에서는 肝陰不足으로 肝陽上亢하여 頭目眩暈, 心悸失眠, 煩躁不安及耳鳴하는 症狀이 있을 때 龍骨, 龜板, 白芍藥등과 配伍하여 活用되고 重鎮安神, 免疫增強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16)</sup>

代赭石은 三方晶系에 屬한 赤鐵礦 Haematites( $Fe_2O_3$ )의 鑛石으로 性은 寒 無毒하고, 味는 苦하며 肝, 心經으로 歸經하며 平肝

潛陽, 降逆, 止血하는 效能으로 頭痛眩暈, 噁氣, 呃逆, 嘔吐, 吐血, 衄血, 崩漏를 治한다고 하였다.<sup>14)</sup>

中藥學에서는 平肝鎮逆時는 生用하고 收斂止血時는 煨用하며, 鎮靜作用과 補血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16)</sup>

中藥大全에서는 手足震顫, 煩躁, 不欲臥床, 大便不暢하는 症狀이 있을 때에 代赭石과 牛膝, 牡蠣, 玄參등과 配伍하면 鎮靜, 通便하는 作用이 있다고 하였다.<sup>66)</sup>

### Ⅲ. 考察

內經에서 飲酒中風 新沐中風이란 用語로 中風이 命名되었으나 이는 現代의 概念과 同一하지 않고, 現代의 中風 急性期를 나타내는 用語로는 仆擊, 薄厥, 大厥, 煎厥이 있으며, 半身不遂는 偏枯, 偏風, 身便不用, 非風 등이 이에 해당되고, 金匱要略 中風歷節病編에서 現代의 概念의 中風이란 用語를 使用하기 시작했다.<sup>4,6,7,29,60,67)</sup>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風氣通於肝”이라 하여 肝은 風木之臟으로 肝木이 失和되어 風이 肝으로부터 起因한다고 하여 中風 形成은 肝의 機能失調가 原因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肝이 風病의 發生, 經過, 治療, 恢復에 絶對的인 臟器임을 意味하는 것이다.<sup>4,20)</sup>

中風의 病因病機와 乙癸同源說에 對해 時代的인 變化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唐宋以前에는 內虛邪中의 概念으로 認識하였는데<sup>6,7,60,67)</sup> <靈樞. 刺節眞邪論>에 “虛風之賊傷人也, …… 發爲偏枯”라고 하였으며<sup>25)</sup>, 金匱要略에서는 脈絡空虛라 하고 正氣가 虛한 틈을 타고 風邪가 侵入한다고 하여 外邪의 轉變概念을 風中於經絡, 中腑, 中臟으로 認識하였다.<sup>7,60)</sup> 또한 嚴<sup>36)</sup>은 病因에 對해 具體的으로 “營衛失調 腠理空疏 邪氣乘虛而入 及其感也 爲半身不遂”라고 하여 人體의 氣血虧損 脈絡空虛로 衛外가 不固할 경우 風邪가 脈絡에 的

中하여 口眼喎斜, 半身不遂, 偏身麻木 等の 諸 症狀이 나타난다고 認識하여 主로 外邪論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素問. 生氣通天論><sup>41)</sup>에 “陽氣者 大怒即 形氣絕而血苑于上 使人薄厥”한다고 하여 情緒的 要因이 中風을 誘發한다 하였고, <素問. 調經論><sup>4)</sup>에 “血之與氣 并走于上”, <素問. 脈解篇><sup>41)</sup>에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名曰 煎厥”이라고 하여, 肝은 將軍之官으로 不治하면 易怒하고 怒로 因하여 熱을 生하고 이에 肝血을 耗傷하여 肝中에 奇하는 相火가 耗傷되어 欣然히 暴發하여 氣血을 꺼고 腦로 上逆하여 昏厥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肝風內動으로 인한 中風의 由來를 설명한 것으로 그 起點이 肝火, 肝氣의 妄動으로 肝木이 能히 中風을 生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sup>11)</sup>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臟腑機能 失調로 風氣가 內動한 病症을 冒眩, 郁冒, 脚攣急, 身瞤動, 振振欲僻地, 四肢掣動, 身爲振振搖 等으로 表現하였다. 특히 傷寒論 29條 脚攣急에서 傷寒誤治로 邪氣는 除去되었는데 肝陰이 受損하여 肝陰이 不足하고 이에 筋脈을 營養하지 못해 脚攣急의 內風症狀이 惹起되고 이때 芍藥甘草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sup>35)</sup>

乙癸同源說에 대하여 <靈樞 經脈篇><sup>25)</sup>에서 “足少陰腎脈...其直者從腎上貫肝隔”한다고 하여 經絡學的 관계로 說明하였고, 水生木의 五行相生的 側面에서 “腎生骨髓 水生肝”한다고 하고<sup>4)</sup>, <素問. 腹中論><sup>4)</sup>에서는 “血枯...有所大脫血...氣竭傷肝”한다고 하여 大量出血이 肝을 傷하게 하여 급기야 腎精을 耗損시키므로 肝腎同病에 補陽精氣 益肝強腎하는 肝腎同治의 理論이 胎動하기 시작했다.

또한 金匱要略에서 內經의 基礎上에서 進一步하여 肝腎損傷하여 精血이 筋骨을 充養하지 못하는 것이 歷節病의 重要病機가 됨을 認識하였다.

聖濟總錄<sup>30)</sup>에서 基本的으로 外風說로 認識하지만 癱緩의 原因은 氣血의 內耗로 肝腎經이 虛해져서 陰陽이 片發하여 생긴다고 하며,

肝主筋한테 氣血의 滋養을 받지 못해서 不能 屈伸한다고 하여 점차 內因에 대한 認識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肝腎精血이 相生, 盛衰 同府하는 生理病理 關係를 認識하기 시작하였고, 錢乙<sup>31)</sup>은 補腎水瀉肝火의 并進的 學術見解를 나타냈었다.

嚴<sup>36)</sup>은 中風의 原因에 있어 喜怒, 憂思, 驚恐과 “肝風上攻”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고,<sup>20)</sup> 肝風을 비로소 中風의 하나로 認識하였으며, 그 症狀을 面靑 心悶 吐逆嘔沫 脇痛頭眩 不聞人聲 偏枯筋急 曲踞而臥라고 하여 점차 內風說을 이루어 가는데 影響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金元代에 이르러 金元四大家에 의하여 中風의 原因을 內生之風이라는 認識이 널리 퍼지게 되어 中風 病因說은 일대 傳變을 이루게 되는데, 明代 王安道는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分類하고, 張景岳은 三家의 原因說을 받아 들이면서 부분적으로 批判하여 中風을 非風이라 하였다.<sup>6,7,60,67)</sup>

한편 乙癸同源說에 대해 張元素는 水生木의 母子關係와 肝腎의 生理特性에 根據하여 肝腸 虛損에 補腎으로 治法을 主張하였다. 李東垣은 腎肝之病同一治 以其遞 相維持라 하고, 丹溪는 格致餘論에서 知栢으로 肝腎의 妄動하는 相火를 瀉하고 地黃, 龜板으로 腎陰을 滋養하는 治法을 重히 여겨 大補陰丸, 知栢地黃丸 같은 瀉肝火滋腎水의 意義로 方劑를 구성하여 肝腎同治의 理論과 方藥을 結合하였으며, 明代 肝風內動이란 表現을 한 李中梓의 醫宗必讀에 이르러 乙癸同源 肝腎同治의 理論이 綜合, 形成하게 되었다.<sup>32)</sup>

清代 이르러 葉<sup>8)</sup>은 生理的 特性에 대한 認識으로 內風은 바로 몸 속의 陽氣가 變動한 것으로 정의하며 血虛, 肝腎虛, 怒傷肝, 肝氣犯胃, 怒傷精, 年老而虛風動, 陽明脈絡虛, 熱盛動風, 時令不調가 內風動越의 原因이 됨을 認識하였고,<sup>9)</sup> 그 病機는 精血이 衰耗하여 水는 木을 涵養하지 못하고 木은 滋養을 적게 받아 肝陽이 亢盛에 치우치게 되면 內風이 때로 일

어난다고 하였다. 葉天士의 이러한 認識은 內經의 諸風掉眩 皆屬於肝과 乙癸同源 肝腎同治說을 바탕으로 成立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林<sup>41)</sup>은 中風의 病機를 眞陰虧者 風自內生 虛陽上冒라고 認識하고 肝氣 肝火 肝風病機에서 각각의 症狀를 說明하며 肝에서 由來하는 病이 많다고 하였으며, 張<sup>11)</sup>은 肝木이 失和하여 風이 自起한다고 하고 또한 肺氣不降 腎不納氣 衝氣胃氣의 上逆으로 臟腑의 氣化가 과도히 상승하여 血이 腦로 上湊하여 血管이나 神經을 막음으로 發生한다고 認識하였다. 張士驥은 內經의 厥症과 明代 張景岳의 非風說을 西醫學 理論과 相互 聯關하여 그 原因이 內傷 氣血 腎水焦枯라고 하고 病機를 水火內動 肝風上搖 血氣并走于上 冲巔前後腦氣筋이라 하였으며<sup>10)</sup>, 張<sup>12)</sup>은 肝火가 스스로 旺盛하여 風을 化生하고 煽動하여 그 氣血을 激動시켜 함께 위로 달려가 腦를 冲激하고 犯하여 神經을 뒤흔드는데서 緣由한다고 하였다.

中風의 治法中 平肝法에 대해 살펴보면 <素問 藏氣法時論><sup>4)</sup>에서는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라고 하여 肝藏血하므로 血燥하면 肝急한다 또한 肝陰이 不足하면 반드시 腎水로서 滋하고 血液으로 유하며 甘涼之味나 辛潤之劑를 用하여 畵한 것이 舒하도록하고 肝陽이 有餘한 즉 반드시 덮어서 沈潛해야 하며 酸收酸降之味를 用하여 營絡之熱을 淸한 즉 升한 것이 伏한다는 의미이다.<sup>41)</sup> 실제 活用에서는 肝腎陰虛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素問. 至眞要大論>에 “諸寒之而熱者取之陰”이라 하였는데 王冰은 壯水之主 以制陽光으로 註釋을 달았으니<sup>4)</sup> 內經의 “肝苦急 急食甘以緩之”와 “諸寒之而熱者 取之陰”이 平肝法의 起原으로 사료된다.

傷寒論 29條 脚攣急에 使用된 芍藥甘草湯은 芍藥은 酸甘으로 營養和血하고 甘草는 補中緩急하는데 兩藥이 并用하여 陰이 恢復되고 筋脈이 營養을 받아 脚攣急이 治愈된다고 보고 이러한 酸甘化陰法이 養陰熄風의 基礎가 되었

다.<sup>35)</sup>

金元時代의 病因病機說의 傳變과 더불어 治法도 큰 變化를 맞아 葉<sup>6)</sup>은 寒涼한 風藥으로 泄氣降痰시키면 眞氣가 損傷되므로 大忌라고 하고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으로 通治法을 삼고 구체적인 病理機轉에 따라 以溫柔潤, 潤之通補, 補土抑肝, 芳香宣竅兼淸上痰火 等の法을 用하였다. 그리고 肝風에서 甘酸之屬宜之라하여 生地黃, 阿膠, 牡蠣粉, 灸甘草, 山茱萸炭을 쓴다고 하고 아울러 身中陽化內動 非發散可解 非沈寒可淸이라는 見解를 提示하며 水不涵木하여 風陽이 上升한 症에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 介以潛之 酸以收之 厚味以鎮之 或用 淸上淸下之法을 通治法으로 症狀에 따라 淸熱兼斂攝神志 하거나 泄肝安胃 鎮補陽明의 法을 用하며 그 외에도 辛甘化風, 甘酸化陰, 淸金平木의 治法을 活用하였다.

張<sup>11)</sup>은 鎮肝熄風湯을 創製하였는데 方劑構成에서 上冲하는 氣血을 下行시키기 위해 牛膝을 重用하여 君으로 삼고, 生赭石, 生龍骨, 生牡蠣, 生龜板으로 鎮肝降逆하고, 玄蔘, 麥門冬으로 淸肺氣 肺中淸肅之氣를 下行토록 하여 스스로 肝木을 鎮制하도록 하고, 茵陳, 川棟子, 生麥芽 三味로 肝陽之有餘를 淸泄하고 肝氣의 郁滯를 條達하여 肝陽의 平降潛鎮에 유리토록 하였다.<sup>53)</sup>

張士驥은 中風治法을 淸肝潛陽 鎮靜熄風法, 養血益陰 熄風鎮逆法, 瀉火滌痰開竅通絡法, 固氣去痰 調和營衛法, 豁痰生津 宣痺活絡法으로 概括하였는데, 中風 治療는 熄風潛陽, 鎮攝肝腎法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으며<sup>10)</sup>, 張<sup>12)</sup>은 養水하는 治法은 원래 肝陽을 다스리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오직 潛降攝納한 뒤에 氣火가 平靜되고 痰濁이 막히지 않으면 곧 서서히 滋養을 도모하여 根基를 튼튼하게 하면 거의 木의 根本인 水의 根源이 자진 育成되어 肝陽이 재차 暴動할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中醫 雜誌 및 中醫 書籍에서 平肝法이 使用된 實例를 살펴보면, 西洋醫學의 生理 病理 및 解剖學이 이미 中醫學에 깊이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아울러 臨床에서 brain CT같은 診斷法이 活用되고 西洋醫學의 治法과 對照의 治法에 의한 治驗例도 發表된 바 있어서 時代의 影響으로 中風前驅期, 腦出血, 腦硬塞으로 나누어 平肝法이 利用되어지고 있다.

中風의 前驅期에 高血壓이나 動脈硬化, 心臟病, 糖尿病의 過去歷이 있는 患者들에게 있어서 24시간내 회복되는 偏癱, 偏盲, 혹은 昏厥이 있거나 顔面 또는 四肢의 麻木感 失語症이 1, 2초 만에 회복되고, 昏昏慾睡, 惡心欲吐, 眩暈, 記憶力障導 甚하면 跌仆하거나, 身體 肌肉 抽跳가 일어나는 症狀에 대해 肝腎陰虛로 因해 肝風이 內動한 것으로 보고 滋陰熄風, 育陰潛陽하는 治法으로 滋陰活血熄風方 및 溫膽湯合天麻鈎藤飲加減, 鎮肝熄風湯을 使用하여 腦血管疾患을 豫防 治療하는데 良好한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sup>44-47)</sup>

中醫에서의 中風의 前驅期の 治療는 動脈硬化, 糖尿病의 과거력이 있고 同伴되는 症狀으로 보아 西洋醫學의 으로 신경증후가 수초에서 수시간 지속하여 24시간이내 완전회복되는 一過性腦虛血證 또는 發病초기 수회의 경한 신경학적 장애가 있고 수일이내 완전히 회복되는 可逆性腦虛血證<sup>3,68,69)</sup>인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韓醫學의 으로 肝風內動을 유발하는 肝陽上亢이 혈관내피세포와 혈전전 상태의 병리가 유사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鎮肝熄風湯이 교감신경 베타 - receptor에 作用하여 血壓을 降下시키며 혈청 Total Cholesterol치의 감소 效果가 良好하므로 平肝法이 中風을 豫防하는데 중요한 治法중의 하나로 認識할 수 있다.

아울러 可逆性腦虛血證의 경우 수일 내지 수개월후에 major stroke로 發展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된 蜘蛛膜下出血의 약 50%에서 動脈瘤가 破裂되기 前에 腦動脈瘤의 warning leaks로 인하여 輕한 頭痛, 嘔吐 眩氣症, 輕한 項部強直등이 나타나고 대개 48시간 이내 완쾌되었다가 수개월후 動脈瘤가 破裂되어 蜘蛛膜下出血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sup>3,68,69)</sup> 患者의

診斷 및 治療에 있어서 세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腦出血의 平肝法에 의한 治療 例에서 毛<sup>50)</sup>는 風陽痰火型 出血性 中風 32例에서 清熱熄風, 豁痰開竅하는 羚羊鈎藤湯을 주어 75%의 有效律이 있었다. 그리고 突然昏仆, 人事不省, 左側 上下肢癱瘓, 口眼喎斜의 症狀이 나타나는데 化痰通腑 平肝熄風法으로 星蘂承氣湯加減을 投與하고 또한 高血壓性腦出血로 蜘蛛膜下出血이 續發되어 意識不明 左側癱瘓 抽搦便秘 腹滿하는 患者에게 羚羊鈎藤湯合藎蒲郁金湯으로 好轉되었다.

趙<sup>18)</sup>는 腦出血 急性期患者 84例에서 天麻 20g, 鈎鈎藤 20g, 羚羊角 2g, 黃芩 15g, 全蝎 5g, 梔子 15g, 生地 20g, 澤瀉 15g, 車前子 15g, 夏枯草 20g, 石決明 25g, 益母草 15g을 基本方으로 痰이 많으면 牛膽南星 15g, 竹茹 15g, 石菖蒲 15g을 加減하여 處方된 熄風湯으로 治愈한 44例中에서 治愈 65.9%, 好轉 27.3%로 良好한 效果를 얻었다고 하고 方中에 天麻, 鈎鈎藤, 全蝎, 石決明은 平肝潛陽熄風의 效能이 있다고 方解하였다.

高等<sup>48)</sup>은 出血性中風 急性期는 病機와 臨床 症狀이 비교적 複雜하므로 活血化癥法으로 概括하여서는 안되고, 이중 특히 中風 閉證 陽亢 및 陰虛陽亢者는 平肝潛陽 育陰潛陽法에 涼血活血之品을 佐로 삼아 不止血而收止血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西洋醫學의 으로 高血壓性腦出血의 內科的 療法은 一般的으로 外科的 手術을 필요로 하지않을 정도의 작은 出血이나 手術適應이 되지않은 腦內深部出血 및 腦內血腫에 의한 2차적인 腦幹障導가 甚하게 나타난 증독한 경우에 腦의 저산소증 방지, 高血壓 調整, 두개뇌 압하강, 자율신경 정상화, 합병증예방에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sup>69)</sup> 腦出血의 경우 韓醫學의 으로 陰陽氣血失常 痰濕內盛으로 氣血逆亂되어 肝陽搖動하여 痰濁이 上泛한 것이 主要要因으로 認識되어 平肝法이 重用되었으니, 分期 治療로 急性期 中臟腑 陽閉者는 辛涼開竅 清

肝熄風하고, 中經絡은 肝腎陰虛 肝陽上亢型, 氣虛血瘀 絡脈瘀阻型, 痰濕中阻型으로 辨證하여 平肝法을 重用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恢復期에 있어서도 平肝法이 항감염 작용 및 뇌수종 가중시에 탈수와 강혈압 작용이 있어서 重用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sup>18,49,60)</sup>

腦硬塞의 治驗例에서 沈<sup>55)</sup>은 5年間の 梗塞性 腦卒中의 中醫 中西醫結合治療에 關하여 中風을 5개 段階로 나누어 治療했는데 특히 病程 1個月以內는 平肝潛陽 化痰除濕 위주로 治療하고 1個月後는 活血化痰를 주로 하며 平肝潛陽 化痰除濕하는 治療를 兼하며, 또한 急性期와 恢復期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急性期에 風痰痺阻 脈絡瘀滯, 陰虛陽亢 肝熱絡阻, 痰瘀互結 瘀血阻絡의 3型으로 나누고 大秦朮湯, 天麻鉤藤飲, 滌痰湯을 分別하여 用하며, 恢復期 治療에 肝腎陰虛할 때는 一貫煎合蟲類藥하며 精神症狀이 있을 때는 平肝潛陽 養心定志하는 治法으로 眞珠母丸合磁珠丸을 投藥한다고 하였다.

黃<sup>52)</sup>은 腦血栓形成後遺症을 中經絡의 範疇로 보고 頭暈, 失眠, 舌紅 苔黃厚乾, 脈弦滑하는 下虛上實者는 鎮肝熄風湯에 祛風通絡하는 海風藤, 絡石藤을 加하면 效果가 顯著하다고 하였다.

또한 震顫麻痺와 老人性 痴呆에 있어서 平肝法이 이용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 病機가 肝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보고 天麻, 鈞鉤藤, 石決明, 生赭石, 白僵蠶, 生牡蠣, 全蝎, 地龍 등의 鎮肝熄風 滋陰潛陽하는 藥物들이 臨床에 많이 利用되고 있다.<sup>19,58,59)</sup>

최근의 文獻 및 雜誌를 綜合해 보면 肝腎陰虛 陽亢風動 氣血逆亂으로 형성된 下虛上實을 中風의 病機로 認識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蔡<sup>41)</sup>, 朱<sup>45)</sup>, 周<sup>46)</sup>, 金<sup>47)</sup> 등은 中風前兆症에 血壓降下 및 血清콜레스테롤치의 減少效果 있는 平肝法을 使用하여 豫防, 治療하였고, 毛<sup>50)</sup>, 趙<sup>18)</sup>, 高<sup>48)</sup> 등은 腦出血 急性期 患者에게 天麻, 鈞鉤藤, 石決明, 代赭石 등의 平肝藥을 重用하

고 있으며, 沈<sup>55)</sup>, 黃<sup>52)</sup>은 腦硬塞 科程 1個月以內는 平肝潛陽 爲主로 治療하며 腦硬塞의 恢復期 治療에도 肝腎陰虛한 경우 및 精神症狀이 있을 때 平肝法을 活用하였고, 董<sup>56)</sup>, 孫<sup>57)</sup>, 中醫內科學<sup>60)</sup>에서는 中風後遺症에 있어서 天麻鉤藤飲, 地黃飲子, 鎮肝熄風湯을 用하였다. 또한 曹<sup>19)</sup>, 胡<sup>58)</sup>, 李<sup>59)</sup> 등은 震顫麻痺 및 老年性 痴呆에 있어서도 病機를 肝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認識하여 平肝熄風, 滋陰潛陽, 滋補肝腎하는 鎮肝熄風湯, 羚羊鉤藤湯, 杞菊地黃湯을 活用하여 治療하였다.

平肝法에 應用되는 藥物은 具體的인 效能과 應用에 따라 羚羊角, 鈞鉤藤, 天麻, 白僵蠶, 全蝎, 蜈蚣, 蚯蚓, 等の 平肝熄風藥과 牡蠣,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等の 平肝潛陽藥으로 分類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최근의 臨床報告를 살펴보면 平肝熄風과 平肝潛陽을 명확히 區分하지 않고 사용되어 지는데 이는 平肝法이 鎮肝, 抑肝, 潛陽, 熄風을 包括한 意味에<sup>15)</sup> 起因한 것으로 사료되며 本草學 書籍에 있어서도 明確한 區分을 하지 않고 있다.<sup>16,66)</sup>

平肝法의 臨床報告를 자세히 살펴보면 嗜睡, 面色紅潮, 脈弦數, 言語乾澀, 또는 性格이 急하거나 舌体向右하는 症狀이 나타날 때 上浮하는 氣火를 抑制하는 潛陽降逆의 意味로 代赭石, 生龍骨, 牡蠣 等の 平肝潛陽 藥物들이 使用되어지고,<sup>53)</sup> 中風 後遺期の 血壓이 持續적으로 높고 強硬, 拘攣時에 平肝潛陽藥物이 應用되고 있는 것으로<sup>56)</sup> 보아 具體的인 腦出血과 腦硬塞의 區分 및 發病日이 明示되지 않았지만 平肝潛陽藥物은 腦出血이나 腦硬塞의 急性期 또는 腦浮腫을 兼하는 경우, 神志異常이 있는 경우에 좋은 效果를 거둘 수 있고 恢復期에 利用될 때는 育陰의 意味를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平肝熄風藥物의 경우 中年以後 많이 發生하는 震顫麻痺에 天麻, 鈞鉤藤, 白僵蠶, 石決明이 重用되고,<sup>19)</sup> 腦動脈硬化로 나타나는 眩暈, 高血壓性腦出血, 蜘蛛膜下出血로 神志不清한 경우 鈞鉤藤, 天麻, 羚羊角 등이 利用되고,<sup>46,50)</sup> 특히

蚯蚓은 溶栓作用으로 腦血栓 患者의 血液流變學的 異常의 改善이 있음이 밝혀졌다.<sup>65)</sup> 그러므로 平肝藥의 平肝息風藥과 平肝潛陽藥의 分類는 清代以後 臟腑辨證論治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介類潛陽, 虫類搜風”說로 起因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分類에 있어서 磁石, 龍骨, 龜板, 鼈甲 等은 平肝潛陽의 作用이 있고 蟬蛻, 牛黃, 白芍藥, 白菊花 等은 平肝熄風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臨床上 정확한 診斷 및 治療效果 昂揚을 위해 平肝潛陽法과 平肝熄風法이 나누어져 運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以上을 總括해 보면 平肝法은 肝陽上亢 肝風內動으로 인한 頭痛, 眩暈, 耳鳴, 目赤, 目珠脹痛, 情緒激動, 震顫, 抽掣, 筋惕肉瞤等을 主症으로 하는데 活用되는 中風의 治療法中의 하나로써 <素問. 藏氣法時論>의 “肝苦急 急食甘以緩之”와 <素問. 至真要大論>의 “諸寒之而熱者取之陰”에 立脚하여 傷寒論 29條 脚掣急에 使用된 芍藥甘草湯이 平肝法의 基礎가 된 것으로 그후 金元代를 거치며 中風 病因病機의 變遷과 별도로 發展해 오던 五臟相關學說中 乙癸同源 肝腎同治說이 서로 融合하여 葉天士에 이르러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의 治法을 세우면서 平肝法이 정립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張錫純은 獨創的인 鎮肝熄風湯을 創製하고, 張山雷는 “潛鎮攝納”의 治法으로 平肝法을 發展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最近에는 中風에 대한 病因病機說이 葉天士의 內風說을 中心으로 河澗의 主火說, 東垣의 主氣說, 丹溪의 主痰說의 內因的인 範疇를 包含함으로써, 治法中 平肝法의 治法을 多用하고 있으나 平肝法의 臨床運用은 正確한 辨證施治下에 臟腑와 氣血의 虛實 그리고 病程의 狀態를 세밀히 把握하여 應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結 論

中風治療에 있어서 平肝法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內經의 “肝苦急 急食甘以緩之”와 “諸寒之而熱者取之陰”에 立脚하여 傷寒論의 芍藥甘草湯이 平肝法의 基礎가 되었다.

2. 內風說과 乙癸同源, 肝腎同治說이 融合한 후 葉天士가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의 治法을 세우면서 定立 形成되었다.

3. 中風前驅期에는 滋陰活血熄風方, 溫膽湯合天麻鉤藤飲, 鎮肝熄風湯이 活用되었고, 恢復期에는 肝腎陰虛할 경우와 精神症狀이 있을 때 많이 活用되었는데 鎮肝熄風湯, 天麻鉤藤飲, 地黃飲子 等이 效果가 優秀하였다.

4. 平肝法은 降壓, 降脂, 鎮靜, 鎮痛, 解熱하는 臨床效果가 있으므로 腦出血, 腦梗塞, 震顫麻痺, 痴呆 等に 많이 應用된다.

5. 平肝法中 熄風藥은 鈎鉤藤, 天麻, 羚羊角, 白殭蠶, 全蝎, 蜈蚣 等이 많이 活用되었고, 潛陽藥은 牡蠣,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等이 많이 活用되었다.

## 參考文獻

- 1) 方藥中 외 : 實用中醫內科學, 成輔社, 서울, 1988, p.414-417,420,422.
- 2) 具本泓 외 : 東醫心系內科學, 書苑堂, 서울, 1993, p.229-247.
- 3)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신경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5, p.295-322.
- 4) 王 琦 외: 黃帝內經素問今釋, 정보사, 서울, 1983, p.28,54,101,14,215,274,479,439,202,483,60,212,273,314,122,231,27,192
- 5) 李京燮 : 中風에 對한 考察(2), 慶熙大學敎大學院, 1992, p.3-5.
- 6) 徐大林 : 中風之古今, 요령중의잡지, 제23권제6기, 1996, p.253-254.
- 7) 方藥中 외 : 實用中醫內科學, 상해과학기술출판사, 상해, 1986, p.414-423.
- 8) 葉天士 : 臨証指南醫案, 上海科學出版社, 上海, 1991, p.18,20,31,1,19,20,31.
- 9) 姜岱昊 외 : 葉天士의 內風說에 對한 小考,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15권제2호 1994, p.130-147.
- 10) 候美玉 외 : 清代名醫張士驤 治療中風의 經驗, 중의잡지 제37권제3기, 1996, p.147-148.
- 11) 張錫純 : 醫學衷中參書錄, 河北科學技術出版社, 하북, p.135,137,312-318.
- 12) 張山雷 : 中風綱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14,232,233,251,266,278,299.
- 13) 安日會 : 中風初期에 應用되는 疏風湯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3(2):23-29.
- 14) 康秉秀 외 : 本草學, 영림사, 서울, 1991, pp.501-519.
- 15) 洪嘉禾 : 實用中醫肝病學, 상해중의학원출판사, 상해, 1993, p.79-81.
- 16) 顏正華 : 中藥學,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5, p.674-705.
- 17) 魏金鳳 : 鎮肝熄風湯加減治療中風50例, 협서중의, 제16권제9기, 1995, p.410.
- 18) 趙玉茶 : 熄風湯爲主治療腦出血急性期臨床觀察, 중국중서의결합잡지, 제13권제11기, 1993, p.679.
- 19) 曹文蘭 : 鎮肝熄風法治療震顫麻痺綜合症療效觀察, 천진중의, 제12권제5기, 1995, pp.17-18.
- 20) 金秉雲 외 : 肝系內科學,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92, p.22,23,26,33,35,56,57,58,59.
- 21) 張立平 외 : 從內風特性談中風發病與治療, 북경중의약대학학보 제18권제1기, 1995, p.24-25.
- 22) 董徵紅 : 風氣通於肝, 상해중의약잡지, 1995년, 제8기 p.8-9.
- 23) 鄭 慧 : 中風病誘因調查分析 북경중의약대학학보 제18권제5기,1995, p50
- 24) 朱廣仁 : 肝病有郁結和上下橫竄厥脫之變, 중의잡지 제36권 제6기, 1995, p.375-376.
- 25) 楊維傑 : 黃帝內經釋解, 成輔社, 서울, 1980, p.137,88,86,123.
- 26) 金完熙 :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서울, 1985, p.143.
- 27) 周然密 : 肝藏血功能紊亂與中風的關係, 절강중의잡지, 1993년12월호. p.561-562.
- 28) 杜鎬京 : 腎系內科學,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9, p.73-74.
- 29) 段光周 외 : 金匱要略手冊, 과학기술문헌출판사중경분사, 중경, 1988, p.13-14.
- 30) 越 佶 :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95, p.169,180.
- 31) 俞景戊 : 小兒藥證直訣類証釋義, 貴州人民出版社, 귀주, 1984, p.156-157.
- 32) 章增加 외 : 乙癸同源肝腎同治源流考略, 강서중의약 제26권제1기, 1995, p.55-56.
- 33) 李中梓 : 醫宗必讀, 상해과학기술출판사, 상해, 1987, p.13-14.
- 34) 楊桂芳 : 精血同源臨床小識, 중의약학보, 1994년, 제6기, p.13-14.
- 35) 王建康 외 : 仲景治療內風5法的臨床運用,

- 강서증의약 제26권제5기, 1995, p.22-23.
- 36) 嚴用和 : 濟生方,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0, p.13-18.
- 37) 申舜植 외 : 臨証指南醫案에 관한 研究, 韓國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제1권제1호, 1995, p.12.
- 38) 童 瑤 : 論葉天士肝風證治之特點, 상해중의약잡지, 1992년 제5기, p.35-37.
- 39) 唐學游 : 談葉天士治肝風用補氣血法, 신중의, 1994년 제4기, p.8-9.
- 40) 楊維華 : 葉天士對中風先兆五因四症與治療四法的探討, 제9권제3기, 1993, p.2-4.
- 41) 林佩琴 : 類證治裁, 旋風出版社, 臺北, 중화민국67년, p.4,5,6,7,185,186.
- 42) 張堅石 : 葉天士對王旭高學術思想的影響-王旭高學術思想淺析, 길림중의약, 1990년제1기, p.39-40.
- 43) 任應秋 외 : 中醫各家學說, 상해과학기술출판사, 상해, 1993, p.254-260.
- 44) 蔡濤遠 : 滋陰活血熄風治療中風先兆76例, 요령중의잡지 제22권제2기, 1995, p.76-77.
- 45) 朱 虹 외 : 肝陽上亢證與血栓前狀態相關關係研究, 요령중의잡지 제22권제5기, 1995, p.195-196.
- 46) 周華珍 : 溫膽湯合天麻鉤藤湯加減治療老年性腦動脈硬化症30例, 운남중의잡지 제15권제3기, p.13
- 47) 金希俊 외 : 鎮肝熄風湯이 家兔의 血壓 및 血清 Total Cholesterol에 미치는 影響, 大韓韓方內科學會誌 제11권제1호, p.109-119.
- 48) 高炳英 외 : 出血性中風急性期是否可用活血化癆法, 강소중의 제17권제5기, 1996, p.46
- 49) 金 玫 외 : 腦出血의 中醫治療近況, 산둥중의학원학보 제18권제5기, 1994, p.358-361.
- 50) 毛志紅 : 出血性腦卒中急性期中醫治療近況, 강서중의약 제27권제1기, 1996. p.14-16.
- 51) 顧明昌 : 胡建華用平肝熄風法治療部分神經科疾病的經驗, 상해중의약잡지, 1995년 제6기, p.4-5.
- 52) 黃百銑 : 鎮肝熄風湯新用, 신중의, 1995년 제9기, p.54.
- 53) 孟 劍 외 : 鎮肝熄風湯臨床析義, 중의약학보, 1995년제1기, p.33.
- 54) 彭 嗽 : 鎮肝熄風湯治療神經系統疾病舉隅, 사천중의, 1993년제12기, p.37-38.
- 55) 沈兆科 : 中醫, 中西醫結合治療缺血性腦卒中的近況, 복건중의약 제21권제3기 1990, p.52-55.
- 56) 董色霞 외 : 中醫治療中風後遺症概況, 중의약학보, 1994년제6기, p.18-19.
- 57) 孫西慶 : 30例高血壓性腦出血術後辨證分析, 강소중의, 제16권제8기, 1995, p.5-6.
- 58) 胡九東 외 : 肝風治驗二則, 북경중의약대학학보 제18권제4기 1995 p.47
- 59) 李曉玲 : 老年性痴呆從肝論治, 협서중의 제16권제9기, 1995, p.431.
- 60) 張伯叟 : 中醫內科學,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8, p.451-469.
- 61) 楊思澍 외 : 中醫百症用藥配伍指南,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p.491-493.
- 62) 張慶紅 : 蜈蚣의 用量問題亟待解決, 中國中藥雜誌, 제19권제1기, 1994, p.700.
- 63) 況時祥 : 蜈蚣의 運用經驗, 사천중의, 1994년제4기, p.17-18.
- 64) 新文豐出版公社 : 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中華民國70년, p.1831-1832.
- 65) 金 鳴 : 蚯蚓溶栓作用研究進展, 중초약, 제25권제1기, 1994, p.45-47.
- 66) 崔樹德 외 : 中藥大全, 흑룡강과학기술출판사, 하북, 1989, p.611-628.
- 67) 葛琳儀 : 略論中風論治, 절강중의학원학보, 제15권제3기, 1991, p.15-16.
- 68) 박영춘 : 뇌졸중의 임상적 진단, 대한의학협회지, 제28권제4호 p.23-27.
- 69) 최일생 : 뇌졸중의 내과적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제28권제4호 p.45-49.

ABSTRACT

The Study on the Therapy of *Pinggān* with Apoplexy

Gi-yeol, Kim. Jong-dae, Kim. Ji-cheon, Jeong.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We had studied about the therapy of *pinggan* with apoplexy and the result were obtained as follows.

1. The therapy of *Pinggān* is based on Treatise on Exogenous Febrile Diseases(傷寒論)'s ShaoyaoGancaoTang(芍藥甘草湯) on the ground of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
2. Ye Tianshi(葉天士) theorized about the therapy of *Pinggān*. It was that the *internal wind* theory combined the theory of that liver and kidney having the same origin. He said that "Through mild the liver, we calm down the liver to stop the *wind*, and nourish the kidney and then removed *heat*".
3. The prodromal stage was treated by prescription of Ziyin-Huoxue-Xifeng(滋陰活血熄風方), WendanTang(溫膽湯), TianmaGoutongYin(天麻鉤藤飲) and ZhenganXifengTang(鎮肝熄風湯). and The therapy has been used to the symptoms of deficiency of liver-*yin* and kidney-*yin* and psychotic symptoms in convalescence. The prescription of ZhenganXifengTang(鎮肝熄風湯), TianmaGoutongYin(天麻鉤藤飲), and DighuangYinzi(地黃飲子) worked well.
4. Internal cerebral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movement disorder and senile dementia were treated by the therapy of *pinggan*, for the action of hypotensor, lipolysis, ataralgia, defervescence.
5. The medicines of *Pinggān-Xifeng* like *Gastrodiae Rhizoma*, *Uncariae Ramulus Et Uncus*, *Scorpio*, *Bombyx Batryticatus*, *Scolopendra*, *Saigae Tataricae Cornu*, and *Pinggān-qianyang* like *Haematitum*, *Ostreae Concha*, *Margaritifera Usta Concha*, *Eretmochelyos Carapax*, *Tribuli Fructus* were usually used.

---

Key-words : CVA, *Pinggān*, *Pinggān-xifeng*, *Pinggān-qianyang*, *Ziyin*